

大學이 바로서야 나라 바로 선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대학의 존립이유는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데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들은 좀 강하게 말한다면, 불량인력 대량 생산 공장이라고 해야 할 지경에 놓여있다.

입시문제가 연중행사처럼 문제되어 온지는 이미 한두 해가 아닌데, 요즘에는 갑자기 반값 등록금 문제로 난리가 난 모습이다. 복지정책 주장들의 흐름을 타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갑작스런 선심정책을 내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한심스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대학생들만 희생양 돼

지금 대학 문제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아니다. 대학문제는, 대입문제로 시작되는 한국교육 체계와 환경의 전체를 생각하면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다. 또 그것은 복지에 연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쌍하게까지 여겨지기도 한다. 그들은 무엇에 희생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순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경제적인 것만 문제라면, 등록금 보다 더 우려해야 하는 것이 학원비 문제이다. 학교에는 등록금만 내고 공부해 학원에서 하면서 모든 가정의 걱정이 되는 경제적 부담은 증발되어 말이 없다. 대입을 위한 학원비만이 아니다. 취직을 위한 학원비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는다. 잘못된 교육제도로 돈을 버는 학원재벌이란 말이 있어 온지도 이미 오랜 일이다. 굴절되고 혼란스런 교육제도를 그냥 두고는 대학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지라도 본질적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학 절반 줄여도 무방

우선, 지금 한국에는 대학교와 대학들의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거의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숫자의 반을 줄인다고 해도 교육에 지장은 없다. 국회의원들의 성화

로 군 단위에까지 대학이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학에 예산지원액은 또 얼마인가.

종합대 학들은 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한답시고 모두가 백화점처럼 학과를 펼쳐 놓고, 등록금으로 장사를 하고 있

특별기고



노재봉

• 전 국무총리

도 없다. 그래 놓고 박사학위는 학교의 브랜드를 높인다는 의도에서 마구 경쟁적으로 남발 하고 있다. 그렇게 배출된 이른 바 고학력 실업자나 보따리 장수 같은 강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요사이영어를 강조하는 풍조 때문에 상당수의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는 형편인데, 강의 하는

가까운 돈을 예산으로 지원받아 쓰는 데, 지원대상 내용을 보면 여간 걱정스럽지가 않다.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고급 인력이 배출되겠는가. 어느 사회든지 종교기관과 교육기관이 타락하면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만다.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러하다.

대학수준의 학원 육성을

대학교육의 판을 다시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다. 직업교육과 기초학문의 구분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대학들이 담당해야 할 기초학문에는 많은 학생이 필요치 않다. 수만 개에 이르는 직업에 알맞은 인력을 배출해 내는 새로운 구상이 있어야 한다. 단일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대학 또는 대학수준의 학원들이 새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런 학교의 교육 연한이 2년으로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목공학교는

半값 등록금보다 교육의 틀 새로짜야 기초학문·취업인력 배출 구분 양성을

는가하면, 대학(옛 전문대학)들은 등록금만 내면 학점은 그저 주는 자격증 장사를 해 온지도 오랜 일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아마도 내가 알기로는 가장 예외적인 대학일 것이다. 또 웬만한 대학들에는 특수대학원이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모두 없애야 하는 대상들이다. 고급 사교와 이력서 장사가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 교수' 말 안돼

교육내용도 이른바 정보사회 지식사회에 이바지 한답시고, 무엇이 지식이며 무엇이 정보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학교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고급퇴직공무원들이나 퇴직언론인들이 예산지원을 받아 대학 강단에 예사로 설 수 있게 된 것도 대학이나 교육당국이 저지른 무식의 소치 가운데 하나이다.

교육수단을 들여다보면 더욱 한심하다.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도서관에 책을 제대로 갖춘 대학은 거의 하나

사람도 듣는 학생들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자기 언어의 논리에 알맞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영어를 몰라서 그렇게 신중히 모든 것을 번역하고 조어를 생산하며 한자술어를 쓰고 있는가.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현상을 놓고 언론들은 면학열기라고 보도하기도 한다. 공부다운 공부를 위해서 도서관 불이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취직고시 자격고시 때 문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연구비 유용 등 큰 문제

교육윤리 문제를 생각하면 또 골치가 아파진다. 교육당국과 대학 간의 유착문제도 이제는 고루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약사의 돈을 받아 외유하는 것이 당연시 된 것도 이미 오래된 일이다. 과학자들이 외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그중 상당액을 개인 주머니에 넣던 것도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오랜 관행이다. 한국연구재단이 연간 약 2조에서 3조

5년이다. 이러하여 세계적인 장인들이 양성된다. 판을 다시 짜지 않으면, 학원비를 통제할 수도 없거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 줄 수도 없다. 산업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신분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경쟁에 들어가는 첩경이 대학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이 이 지경으로 장사치하고 다들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지경으로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면 사회는 어떤 인간들을 고급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개미 쳇바퀴 돌 듯 교육당국이 내놓는 정책이라곤 입시정책 뿐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교육당국에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국방비를 상회하는 쓸 데 없는 교육비 지출과 낭비를 대통령이 방지할 수 없는 일임은 물론, 인간환경의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일이다. [4]

대학생 시위에 政治人이 왜 가나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특별기고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기업, 사학재단 등)가 공동으로 대학의 재정적 책임을 분담하는 나라들이 있다. 넷째의 유형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국·공립대학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국가가 대학재정의 책임을 거의 전적으로 지는 첫째와 둘째의 유형

째는 사립대생 학부모의 교육비 '2중부담'이라는(조세를 통한 국·공립대 교육비의 간접부담과 등록금을 통한 사립대생인 자녀교육비의 직접부담) 차별이고 둘째는 우수한 학생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의 국·공립대학이 누리는 특전적 유리함이다. 이처럼 불평등한 현상은 고등교육비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형태인 미국과 일본 같은 재정 구조를 선택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온값'이든 '반값'이든 대학재정의 부담을 나누어 짊어질 주체들이 각각 어떤 비율로 분담할 것인가와 어떤 재원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새롭게 도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1)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상대적 비중을 낮추어 준다는 것과 (2) 정부 보조금, 기업의 지원, 사회의 기부 등의 상대적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과 (3) 설치자 간(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지역 간, 학문영역 간 대학의 평등주의적 균형을 손상 시키지 않을 것 (4) 정부, 기업, 사회로부터 대학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 방안뿐만 아니라, 조세, 행정적 지원 등 간접적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새로운 대학교육비 분담에 관한 연구, 토론, 합의가 있는 후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경감시킬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불만에 가득 찬 학생시위현장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우선은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4]

할 경제적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재정지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일반 사회는 아직 기부관행이 정착되지 않아서 대학을 지원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대학은 자연히 재정면에서 학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443만 3,000원이고 사립대학은 768만 6,000원이다. 임금 근로자의 40%가 월급으로 100만~200만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정도의 등록금을 쉽게 낼 수 있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보면 구미 선진 국가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시골 출신이 도시 소재 대학에 다니려면 생활비, 교통비, 잡비, 도서비 등을 등록금에 추가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부모들은 허리가 휠 지경일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재정의 상당히 큰 부분을 학부모(학생)가 짊어지고 있다. 국·공립대학인 경우는 40% 정도를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립대학은 65%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구미 선진사회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것은 외국에서는 중요한 교육재원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보조금, 재단의 전입금, 기업의 지원, 사회(동창회, 지역사회, 자선가 등의)의 기부 등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대학재정을 학부모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재정을 분담해야 할 주체들이 재정부담을 서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또는 '설립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기피해 왔고, 기업은 세금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기피하고 있으며, 대학 재단은 대부분이 대학재정을 부담

반값 등록금 연구·토론·합의부터 하라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매년 높은 율로 인상되고 있다. 심지어는 기여(기부) 입학제라는 공여지책까지 제안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재정 제도를 볼 때 대체로 서너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국가들로서 정부가 대학재정을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는 나라들이다. 이 유형에는 구 소련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있다. 둘째는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서구 선진국들로서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엘리트주의 사회로서 각 분야 지도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이다. 셋째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가와 사회(동창, 학부모,

은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중국과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처럼 고위층과 중·상층 계층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의 기회 면에서 더 유리한 경우,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지 못하는 하층 계층이 고위층과 중·상층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대학교육비를 납세와 정부재정을 통하여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현상을 사회 비평가들은 역진적, 후원적(sponsored) 체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조금 밖에 받지 못하는 교육재정 체제에서는 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 첫

學歷차별 폐지 大學 구조 조정을

특별기고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비종교에 대한 광신과 다른 건 강박증을 일으킨 엄연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학이라도, 대학 간판이 없으면 제대로 사람 대접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이 그것이다.

수많은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학력차별만큼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차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다. 사회·경제적 차별이 모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도심 촛불시위가 벌어지던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알바'를 전전하고 있는 학생들의 고충을 현장 인터뷰로 소개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 다닌다는 옛된 여학생은 이런저런 고충을 털어놓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공부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상의 대부분이 '알바'에 묶여 있다는 얘기다. 그는 "웬만한 집에서는 등록금 감당 못해요. 등록금 벌려고 학교를 쉬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3개를 해도 등록금엔 턱도 없어요"라며 말을 맺지 못했다. 한 학기 1,000만원에 육박한 대학 등록금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되풀이 하자는 게 아니다. 신통처럼 싱그러워야 할 여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흘리는 애끓는 눈물 속에는 살인적인 등록금에 대한 절망과 분노만 담긴 게 아니었다. 거기에선 어떤 고통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학만은 미망히 졸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박증 같은 게 어른거렸던 것이다.

'미친 등록금' 못지않게 잘못된 건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를 휘감고 있는 대학 졸업장에 대한 강박증인지도 모른다.

이 강박증은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할 때 당연히 감안되어야 할 상식적인 변수들을 몽땅 소멸시켜 버린다. 대학을 왜 가는지, 적성이나 능력엔 맞는지, 가정형편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대학 진학이 투자한 것만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같은 당연한 체크리스트조차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리하여 이

제 대학은 천국행 티켓을 보장한다는 사 이비종교의 사원처럼 돼버렸다. 그러지 않고는 고교 졸업생의 80%라는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 대졸자의 50% 가까이 가 단기 실질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 당 수천만원씩 돈 보파리를 싸 들고 끝없이 줄을 서서 꾸역꾸역 대학문을 두드리는 기괴한 오늘의 현실을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학 강박증이 사

든 영향의 출발점이다. 차별은 학업을 마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흔히 '변두한 직장'이라고 말하는 대기업이나 은행 같은 금융회사, 기획·관리 직종은 신입사원 지원자격부터 대졸자로 제한돼 있다. 아무리 자질이 우수하고 업무 경쟁력을 갖췄다고 해도 고졸자들은 자동적으로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취업 출발선상의 격차는 가장 현실적

인 삶의 조건, 즉 소득수준의 격차로 이어진다. 물론 학업도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대졸과 고졸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나뉘는 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2008년 고졸자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졸 이상은 164라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임금지수는 177로 그 격차가 훨씬 크다. 문제는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 고졸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는 매월 108만7,848원으로, 대졸 이상 근로자 173만251원의 62%였다. 이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져 2009년에는 고졸 근로자 급여(166만6,846원)가 대졸이상 근로자(284만6,748원)의 58%에 불과했다.

출발선상의 사회·경제적 차별과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고착화하면서 일종의 신분적 특성까지 갖게 된다. 사실 요즘 학력에 관한 차별적 인식은 마치 봉건시대의 신분제에 대한 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그런 인식이 극명하게 확인되는 지점이 결혼이다. 결혼 중매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학교는 어디 나왔냐"는 것이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大卒' 따지는 취업·결혼 인식전환 시급

政治圈 ‘票心’ 겨냥이 교육 망친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특별기고



전 상인

• 서울대 교수/사회학

오늘날 입학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전국적으로 30~40%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그만한 비율의 대학이 1980년대 이후 등장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인구통계학적 추이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유념했다면 현재와 같은 학생미달 사태는 당연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포퓰

국가利害 외면 ‘半값’ 呼價로 혼란 불러

연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어서, 믿거나 말거나 변호사 출신에다가 국회의원까지 지낸 오세훈 서울시장도 힘들었다고 말할 정도 아닌가. 높은 등록금 탓에 학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매진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결행하는 대학생도 적지 않다고 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대학등록금 이슈에 대해 정치권이 발설(發說)하고 나선 점이다. 대학진학률이 80% 안팎이라 사실상 거의 온 국민이 이해 당사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연달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에게 유구무언(有口無言)을 강력히 권한다.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이 있다면 말이다. 누가 봐도 작금의 사태에는 예고된 낭패와 자초한 재앙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진학률 급증이 화근이다. 1980년대 초반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30% 정도로서 현재의 OECD 유럽 국가 수준이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 시절 난데없이 졸업정원제가 도입되더니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대세로 굳어버렸다. 대통령 직선제 및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높고 낮은 정치인들이 방방곡곡에 대학시설과 정원확대를 약속하고 실천한 결과다.

리즘 행보에 대해 교육부 관료가 자리를 걸고 인·허가를 막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 신생 대학들은 교육부 고위직을 위한 ‘전관예우’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등록금의 앙등 또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양적으로는 사립대학에 의해 주도되며 그들에게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등록금이라는 사실쯤은 초등학생이라도 안다. 양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학간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는 반면 정부의 대학지원은 늘 쥐꼬리만한 처지에서 학교 운영자로서는 자식의 대학진학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땅의 학부모가 가장 만만한 ‘봉’(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최근의 등록금 대란은 결국 정치권과 관료제 합작의 불량 교육정책이 마침내 끓아터진 경우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를 야기시킨 과정 못지 않게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 역시 정략적이라는 점이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등록금 절대적존형사학(私學) 구조를 방치한 채 등록금 인하 방법만 따지는 일은 백약(百藥)이 무효다.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마당에 대졸자의 양산체제는 누구의 이익도 아니다. 학비가 가계나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도 엄청나거니와 학력과잉 사회는 구직난과 구인난의 불일치를 만성화시킨다. 고학력 환경미화

원이나 택시기사, 술집집대부는 전형적인 후진국 징표다. 문과 중심의 대졸자 증가가 사회의 윤리도덕의 상승을 기약하는 것도 아니다. 고학력 청년 실업자의 양성과 누적은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불만을 높인다. 대졸자의 취업률이 50%대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좌파 평등주의 이념이 득세하고 만연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런데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찬 젊은 세대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공약이 바로 반값 등록금이었다. 득표에 눈이 멀어 천도(遷都)를 약속했던 그 이전 대선과 발상은 같았다. 일반 국민이 별로 새겨 들지도 곧이 믿지도 않았기에 시나브로 유아무야(有耶無耶)될 줄 알았던 반값 등록금 이슈가 세간에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4·27 보궐선거 직후였다.

이 문제의 원죄(原罪)를 다 뒤집어쓰며 다시 한번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은 역시 한나라당 답다고 치자. 그런데 기회를 놓칠세라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자신의 선거전략으로 역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처신은 더욱 가관이다. 연초에 당내에서조차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되었던 반값 등록금안이 불과 며칠 만에 대국민 약속으로 부활한 것이다. 만약 정권을 되찾을 경우 그제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악이 될지 독이 될지 집권 경험을 통해 이제는 판단능력이 생겼을 법 한데도 말이다. 특히 이를 반세기 전 6월 항쟁과 연관시키려는 애처로운 노력은 등록금 인하라는 학생들의 순수한 목적에 대한 오독(誤讀)이자 모독이 아닐 수 없다.

해질녘 어물전에서나 들림직한 대학 등록금 ‘반값’ 호가(呼價)에는 정책적 실리는커녕 최소한의 언어적 품위도 없다. 아무리 당장의 인기를 쫓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라고 해도 반값 대학등록금 논쟁은 당면한 선거공약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결부되어 있을 뿐이다. 그게 바로 5년 단임 ‘대통령 무책임제’ 하에 팽개쳐진 한국교육의 슬픈 운명이다. 언필칭 독재체제라고 평가되는 이승만 혹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비해 훨씬 더 후퇴해 버린 것이 작금의 대학교육이다. 아니 아예 망조(亡兆)가 들었다. 적어도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민주화의 공과(功過)부터 제대로 성찰될 필요가 있다. [W]

2면에서 이어집니다.

한 가정을 이루려는 남녀의 결합을 전제할 때 고학력이나 경제력, 종교나 성격 같은 많은 조건들을 따지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학력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감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는 미혼남녀 665명을 대상으로 결혼을 할 때 어떤 조건의 동질성을 가장 우선시 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른바 ‘동질혼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학력(26.5%) 경제력(18.0%) 종교(16.7%) 직업(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학력은 단순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넘어, 남녀간 전인적 공감대의 기초로까지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다.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앞서의 여학생을

보고 “저 정도의 대학을 저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반드시 졸업해야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직업과 소득뿐만 아니라, 결혼과 후세의 삶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신분증명서라면,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미친 등록금’ 정도가 아니라 가산을 탕진해서라도 반드시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학 4년간을 전공공부한 자 못하고 ‘알바’만 하다가 끝낸다고 해도 졸업장을 ‘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친 등록금’이 가까스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숨통을 조이는 현상적 부조리라면, 학력차별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을 대학으로 몰아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부조리다. 공문의 큰 흐름이 등록금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다는 이유로 대학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게 먼저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려면 대학 정원을 줄이고,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을 도태시키는 구조조정의 추진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작지만 합리적인 결정들이 학력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각 신문의 사회, 경제면엔 ‘고졸 여행원이 돌아왔다’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IBK기업은행이 은행 창구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성화 고교 졸업생 20명을 뽑았다는 내용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후 취업난이 심화해 고졸사원

자리까지 4년제 대졸자가 차지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수십 명 단위로 고졸사원을 뽑기는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사실 은행 창구 업무는 각종 파생상품이 등장하고 방카슈랑스 같은 새로운 업무가 등장했다고는 해도 명민하고 손 빠른 상고 졸업생이면 무리 없이 소화할 만한 일이다. 오늘날의 신한금융을 일군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역시 선린상고를 나온 고졸 행원 출신이었다.

비합리적인 학력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도 정책이지만, 인식의 전환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IBK기업은행처럼 과감하게 합리적 결정을 하고 관철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부처와 기업 등의 공채에서부터 가능한 학력제한 조건을 실질에 맞게 조정해 나가길 기대한다. [W]

從北행태 중단 - 참전 용사 禮遇 개선 촉구

大韓言論人會 6·25 참전 동우회 천안함 전학 성명 발표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 동우회는 지난 6월 20일 북한에 의해 폭침당한 천안함을 견학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으며 이 같은 북한의 간담없는 무력 도발을 억지할 효과적인 국방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전언론인 동우회는 또한 “북한이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왜곡 선전하며 사과, 보상, 재발방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느끼며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이를 불신하며 북한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일

부 좌경 친북세력의 반국가적 종북 행각을 즉각 중단 하라”고 성명했다.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 동우회는 또 한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2만7천6백 달러로 성장한 오늘까지도 국민 1인당 한 달 최저생계비(53만2천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액수(12만원)를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생사를 넘나들며 나라를 지킨 참전 노병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56주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속한대로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성명서와 탄원서 전문은 별항과 같다.



천안함을 견학한 6·25참전 동우회원들이 ‘富國強兵’의 휘호를 전달.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홍원기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언론인금고 출연금 증액을 역설하고 있다.

언론인 금고 기금 대폭 확충 퇴직 언론인도 혜택 누려야

대한언론인회 대토론회서 건의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6월 28일 오전 10부터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 ‘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대 토론회’에 참석, 현재 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언론인금고’ 기금을 확충하여 퇴직언론인들에게도 이 기금을 활용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성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동욱 서울행정대학원 교수 등 문화예술과 미디어관련자 10명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언론인금고’는 1974년 출범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언론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출범당시 기금은 정부출연금 9억 원이었다.

이후 1996년 까지 공적자금 113억원을 더 출연, 현재 기금은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해서 340억원이 됐다. 결과적으로 ‘언론인금고’ 출연금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들을 도와주고도 이자 수입으로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 복지사업이다.

그런데도 1996년 이후 15년 동안 기금이 더 이상 출연 되지 않아 현재 ‘언론인금고’ 기금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것은 ‘언론인금고’ 수혜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기금은 수차 증액을 건의했지만 여태껏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지난 정부는 언론 사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신문유통사업에 1,1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85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많은 정부자금을 쏟아 부은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됐느냐”고 반문하고 이 자금 중 일부만이라도 ‘언론인금고’에 출연했을 경우 많은 언론인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또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 교사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받고 있지만 언론인들에게는 연금혜택이 전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4]

성명서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동우회는 지난해 3월 26일 북한군에 의해 폭침당한 천안함의 처참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대한언론인회 6·25참전동우회는 이 같은 북한의 만행을 제2의 6·25 남침 도발로 간주,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 우리는 북한이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왜곡 선전하며 사과, 보상, 재발방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느끼며 우리 군은 이 같은 북한의 간담없는 무력 도발을 억지할 효과적인 국방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 우리는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46명의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이를 불신하며 북한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일부 좌경 친북세력의 반국가적 종북 행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원서

6·25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대한언론인회 6·25 참전동우회 회원들은 6·25 남침도발에 대해 반성은커녕 아직도 무력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반 평화적 반민족적 작태를 통렬히 규탄하며 현재 명목뿐인 처우에 지나지 않는 6·25 참전 노병들에 대한 예우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 현재 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 노병들의 수는 23만 3천명이고 이중 약 20만 명이 생존해 있을 뿐이며 생존자들마저도 모두가 70대말~80대의 고령이어서 여생을 기약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세월에도 나라가 응분의 보답을 하지 않고 냉대해서 극도의 소외감을 느껴야 했지만 당시의 나라 경제형편을 이해해서 불평불만을 자제해 왔던 것입니다.
- 그러나 1인당 GDP(국민총생산)가 2만7천6백 달러로 성장한 오늘까지도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에게 고작 월 1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결국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을 홀대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월 12만원이란 국민 1인당 한 달 최저생계비(53만2천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로 생사를 넘나들며 나라를 지킨 참전 노병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자국민도 아닌 이민 간 한국인 참전용사에게도 자국민과 차별 없이 월 2,200달러를 통장에 넣어주고 그 밖에 자동차 등록세, 가스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제 56주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싸운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를 선진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국토방위를 위해 싸운 6·25 참전 유공자들의 처우를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사)대한언론인회 6·25 참전동우회

아직도 北 주장 동조... 천안함은 통곡한다

거대한 고철덩이로 변한 천안함은 말없이 서있었다. 다만 두 동강 난 선체의 처참한 모습이 그날의 비극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대한인론인회 회원중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참전동우회원들은 한국전쟁 발발 61주년이 되는 6월20일 북한에 의해 폭침당한 천안함을 직접 눈으로 보기위해 해군 제 2함대사령부를 찾았다. 만신창이가 된 선체의 구석구석에선 불의의 일격을 받고 산화한 46명 장병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61년전 소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목숨을 던져 나라를 지켜낸 노병들의 눈에도 천안함의 폭침은 북한의 전쟁규칙을 어긴 비열한 어뢰발사로 빚어진 만행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자리가 된 것이다.

파괴된 천안함의 각 부분을 가리키며 당시의 폭침과정을 과학적인 분석을 곁들여서 설명한 해군 제 2함대사령부의 김영규 소령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직접 천안함을 보고 상황설명을 듣고 나서는 정부 발표를 믿게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다. 올 봄에 각 매체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0%가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30~40%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국론결집현상이다.

따라서 천안함은 다국적 민군합동조사단이 내린 최종결론대로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약 250kg으로 추정)이 장전된 어뢰의 수중폭발로 인한 폭침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밝힌 구체적인 대목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은 폭발순간 천안함을 두 동



지 용 우
•본회 6·25 참전 동우회 간사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에 어뢰를 발사한 실험에서 함체가 두 동강 나는 효과를 증명해 냈다. 천안함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상황이 그러한 데도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국민여론은 어뢰에 의한 폭침설, 압초충돌설, 심지어는 미군 군함과의 충돌설까지 여러 갈래로 갈려서 국론분열현상이 빚어

유언비어와 괴담을 유포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해왔다.

통일부장관시절에도 김정일이 달라고만 하면 대북 퍼주기에 앞장섰고, 2005년 6월15일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포옹한 정동영의원은 최근에도 “천안함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었다.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은 “천안함 발표를 보았지만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고 공개발언 했다.

대한민국내에서 활개치는 이런 종북좌파 지식인들이 사실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보다도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인 것이다. 흡사 ‘쫄탁동기’(啣啄同機)현상이라고나 할까.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어미닭은 밖에서 쪼고 병아리는 알 안에서 쪼아 계란을 부수고 나오는 현상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북한은 무력도발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내부의 적인 친북좌파세력은 안에서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댄다.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는 이들 반국가적 이적단체나 종북인사들이 더 이상 세력을 확대하기전에 대한민국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도록 반드시 축출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천안함폭침현장을 보고 마음깊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從北주의 더 이상 발 못붙이게 해야

강 나게 한 소위 ‘버블제트’ 효과에 대해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블제트란 1996년 6월4일 호주해군이 실제로 폭파실험을 통해서 굳어진 학설이다. 어뢰가 수중에서 터질 때 발생하는 ‘버블제트’(일종의 물대포효과)는 대형군함도 간단히 두 동강 내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버블제트를 일으키자면 어뢰를 직접 함정에 대고 쏘지 않고 함정 아래 수중에서 폭발시키면 거대한 수포(水泡)의 물기둥이 발생하면서 선체가 역V자로 꺾이면서 두 동강이 난다는 것이다. 호주 해군도 퇴역을 앞둔 2700t급 호위구축함 인접수중

졌던 것이다. 특히 국내 종북 좌경세력들은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를 불신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 왔다.

합조단에는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의 전문가들도 24명이나 동참했다. 이들이 과연 ‘있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한국의 들러리를 서야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또 유엔안보리는 작년 7월9일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고 앞으로 적대행위의 방지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이것 역시 한국의 대 유엔로비활동의 효과인가. 국내 친북좌파들은 그후에도 인터넷에 천안함에 관련된 각종

牛頭山에 춘천대첩 기념관을 건립하자

6·25 한국전쟁 하면 전국토가 격전장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치열했다. 그 가운데서도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격전지 하면 낙동강 방어전인 다부동(多富洞)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개전초기 춘천방어전의 춘천대첩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춘천대첩은 국군 6사단과 춘천시민, 학생, 경찰이 하나 되어 전차를 앞세우고 대전포의 지원사격 아래 남침하는 북한군을 명실상부한 군(軍)과 관(官, 警察) 민(춘천시민과 학생)이 합심하여 3일간이나 진격을 저지해 춘천시를 사수하고 북한군의 서울을 포위 격멸하려던 작전기도를 좌절시킨 세계전쟁사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전투였다.

춘천대첩은 북한군이 춘천시 인접 옥산포(玉山浦)까지 진격해 오면서 전차와 자주포 등의 화력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6사단 7연대 1대대 대전차포 중대 2소대장인 심일 소령이 특공조(5명)를 이끌고 적의 포탑에 올라가 수류탄과 화염병을 던져 자주포 3대를 격파, 남진을 저지하는 전과를 올렸다. 계속 북한군은 춘천 시내를 향해 포격을 가해 포탄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춘천사범학교 학생(당시 학도호국단) 들은 포병 16대대의 노출된 탄약고를 옮기고 포탄을 날라 주는 등 지원사격을 도왔다. 또한 제사공장의 여공들은 주먹밥을 공급해 군의 사기진작에 한몫을 했다.

그리고 북한군이 양구(楊口)에서 남침해 38선 바로 남쪽의 북산면 내평지서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진지화되어있는 지서를 지서장 노종해 경위 이하 12명의 경찰과 북산면 청년 단원들이 북한군과 싸운 결과 북한군은 2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경찰의 저항을 뚫지 못해 결국 박격포를 동원, 지서를 불



박 기 병
•전 강원민방 사장
•본회 발전기획 위원장
•6·25참전 학도병

춘천대첩은 6·25전쟁에서 전승(戰勝)의 귀감이 되고 있고 전사(戰史)의 본보기로 기록되고 있다. 6·25 한국전쟁 이후 전국의 격전지에는 전적비와 기념관등이 세워져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송도 청량산 자락에 인천상륙작전 33주년을 맞아 문을 연 기념관

칠곡 영천 포항 등 8개 시 군에 호국 기념관 청소년 전투 체험시설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춘천대첩은 어떠한가? 2000년 6월 26일 춘천대첩 50주년을 맞아 춘천시 근화동 소양강변에 대한민국을 구한 춘천대첩이라 해서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이 조성됐으나 고작 105밀리 곡사포 1대와 사격장면의 조각 그리고 3일 동안 격전을 펼친 전투일기를 기록한 조형물을 세웠을 뿐 초라하기 이를데없다. 춘천 공지천(孔之川)변에는 6·25 전쟁에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군의 참전 기념관이 세워져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 대첩의 생생한 전투상황을 사실적으로 조성할 필요는 없을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하지 않는가. 6·25 전쟁의 교훈을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도 춘천대첩의 생생한 전투상황을 사실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춘천대첩 기념관은 6·25 전쟁 개전 당시 전방 지휘소였던 우두산(牛頭山) 또는 옥산포전투의 격전지인 위도에 세워 전투별로 재현해 놓을수 없을까. 요즘 경춘선 전철 개통으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에게 6·25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軍官民 합심 北韓軍 막아낸 戰勝地

태우고 말았다. 1시간여의 격전을 전개한 것이다.

이 전투에서 노종해 지서장 이하 9명의 경찰관과 북산면 청년단장인 김봉림 씨 등 3명의 청년단원이 전사했다. 내평지서의 경찰과 청년단원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북한군의 남침이 1시간 이상 지연되어 국군의 곧나부터 남쪽 주저항선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여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춘천 우두산 전투에서 경찰이 국군 6사단 7연대와 합동작전에 참여할 수 있어 춘천대첩 전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당시 우두산에는 7연대 전방 지휘소가 있었다.

은 4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했다. 기념관에는 인천 앞바다에 집결해 공격을 개시하는 UN군의 항공모함과 화력지원함 비행기 등과 월미도 등 주변지형을 실제 상황과 같이 만들어 놓아 당시의 전황(戰況)을 실감케 하고있다. 또한 낙동강 방어전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였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 역전의 시발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보훈처는 낙동강 호국 평화벨트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이에따라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국비, 지방비 1,500억원을 투입해 낙동강 방어선 격전지인 상주

‘북한 人權法’을 보는 해외한 視角

6·15선언 11주년이 지나갔다. 그것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살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무차별 공격을 자행했다. 이는 정상회담에 목매달며 동원된 군중의 환영 속에 꽃다발 받고 열씨안으며 사진 찍고 종잇장에 서명한다고 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체제와의 화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드러냈을 뿐이다.

지난 6월1일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최악 중 최악 2011’ 보고서에서 북한을 올해 ‘최악 중의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했다. 이 기구는 “북한 정권은 2,30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사실상 노예상태로 두고 있다.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과 고문, 심각한 영양부족 등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심각한 상황은 최근의 탈북자 러시가 말해준다. 지난 6월11일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 주민 형제 가족 9명이 전마선을 타고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우도 해상으로 귀순했다. 2월5일 서해상을 통해 넘어온 31명 중 4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지 녀 달만의 일이다. 탈북자는 중국에만 최대 40만 명이 전전하고 있고 이미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가 작년 10월 현재 2만여 명에 이른다. 북한의 참상은 동족으로서 방관할 수 없다. 그러나 여야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꾸물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겠다던 한나라당은 정권의 정체성을 잃고 휘청대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언론의 인식은 매체별로 남북대치와 방불하다. 한겨레는 6월

15일 사설에서 “현 정부가 기왕의 합의들을 지키지 않고 대북 대결태세를 고집한 결과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이와 관련된 그릇된 발상의 집약이라 할 만하다”고 강변했다. 지금의 남북대결 구도가 마치 남한의 책임인양 호도한 것이다. 이 신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한겨레 南北대결을 남한 책임인양 호도 동아·문화는 野黨의 從北주의태도 비난

문은 “한나라당 제안 취지대로라면 남북 대결주의를 부추기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화시킬 우려가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대화를 해야 할 상대방을 두고 공개적으로 소추 자료를 수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폈다. 과거사도 파헤쳐서 정리하는 관에 북한지도부의 죄악상을 정리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세습 독재집단이 자행한 ‘인류에 반하는 범죄(crime contre l’humanite)’의 소추를 외면하지 않는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실었어야 소위 ‘진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이 신문은 “북한이 스스로 체제를 개방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게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개선하는 데도 가장 빠른 길

무엇인지 이 신문은 제시하지 못했다.

가능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사회에 개방의 충격을 주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 할 것이다. 탈북자 단체들이 북에 보내는 풍선 전단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이 신문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의 요체는 인도적 지원의 투명한 분배,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의 체계적 수집·기록·보존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문화일보의 6월3일 사설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이 북한과 인권 대화를 하는 마당에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북한 정권을 자국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김정일을 편들기 위한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민주당의 친북성을 공박했다.

동아일보는 이미 4월23일 사설에서 “북한인권법은 2,400만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수집·기록·보관토록 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다. 서독도 통독 전 이런 노력을 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만들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자기 나라 세금을 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가 종북(從北)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 그에게 묻고 싶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한테서 확실한 종북주의자로 인정받고 싶은가”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6월 16일 사설에서도 “북한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는 가혹한 인권 탄압과 20만여 명이 수용된 정치범수용소를 기반으로 통치하는 김정일-김정은 부자 정권의 아킬레스건(臍)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속출하는 것은 북한이 인권의 지옥임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다. 북주민을 동토(凍土)에서 구출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우리 세대에 부과돼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인권법은 대결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체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르도록 독려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남북한의 대결구도를 획책하려고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북한도 가입한 유엔이 해마다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권은 각국의 특수사정이 약간씩 존재하지만 집회와 표현, 결사의 자유 등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인권문제는 정치문제다. 정치화하지 않으면 해결이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 하늘이 없어지지 않는다. 종북 정치인들이 정계의 실력자로 행세하고 이를 추수하는 종북 언론이 횡행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발전도 북한의 인권개선도 불가능해 보인다. [4]

누가 위기의 한국을 구할 것인가

유럽의 한복판인 파리, 런던에서 우리의 젊은 가수들에게 열광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의 문화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약진했구나! 그뿐인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한국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대견하다. 세계에서 활약하는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자, 성악가 등 우리의 젊은 음악인들, 세계수준으로 도약한 운동선수들... 모두 자랑스러운 한국의 젊은 피다. 그러나 눈을 돌려 국내 정치판을 보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소위 ‘반값 등록금’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정치인들이 과연 진정 대학생들과 국민들을 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표를 의식해서 알파한 쇼를 하는 것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이 불투명 한데다 비싼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대학생들을 생각할 때 정부와 대학과 기업, 국민들이 모두 머

리를 짜내 ‘등록금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아니다. 유권자의 표 좀 얻겠다고 경박하게 젊은이들 앞에서 무슨 뽕이상품 팔듯 ‘반값등록금’을 외쳐대서야 되겠는가.

중앙일보의 한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그의 이름 그대로 ‘황당하리만치 우려스럽게’ 불쑥 ‘반값등록금사태’에 불을 지르고 뒷감당도 못하고 있다. 야당 간부들은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이번에도 예외 없이 대학생들의 집회에 불을 쬔며 시위를 거들었다. 그뿐 아니고 민주당 대표는 대학생들 앞에서 “소



김광섭

·본회 회우
·전 중앙일보 편집 부국장

독 수준 하위 50%부터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가 야유를 받자 다음날 모두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는 ‘몽땅 등록금’으로 말을 바꿨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등록금 시위가 “6월 항쟁, 광우병 촛불광풍에 이어 제3의 항쟁으로 승화되고 있다”고 선동했다. 경제, 교육부총리를

지낸 그는 과거와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인기전술을 쓰고 있다.

시장 장물뱅이의 흥정도 이렇게는 안한다. 세금 낼 국민들에게 물어나 보았는가. 대학 등록금 경감은 국가예산과 대학의 잉여금 액수, 기부금, 장학제도

확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어느 한 개인이나 정당이 우격다짐으로 반값에 흥정하는 게 아니다. 결국 국민세금을 상당부분 쏟아부어야 하는데 마치 제 호주머니에서 내주듯 한다.

또 다른 국민적 이슈로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문제가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할지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할지’에 대한 주민투표라는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졌다. 너도 나도 포퓰리즘의 홍수에 휩쓸려 갈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정치생명을 건 투쟁을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조차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판지를 거는’ 가운데 우군의 도움도 없는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달콤한 말은 듣기에 좋다. 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반하는 그의 싸움은 불리

7면으로 이어집니다.

방송 기만행위 드러낸 ‘트루 맛 쇼’

한 기업이 백년동안 유지되고 또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거대기업인 IBM이 지난달 창사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축하와 함께 어떻게 하면 100년이란 세월을 지켜낼수 있었는지에 대해 세간에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시사잡지 포천이 분석한 기사 내용이 흥미를 끈다. 포천은 ‘창업주인 토머스 왓슨의 경영전략을 통해본 IBM장수비결 5가지 교훈’이란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싣고, IBM의 장수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 소개했다. 포천은 5가지 교훈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줬다는 점을 들었다. 왓슨은 “회사가 앞으로 유망한 미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거듭 당부했고 직원들은 회사를 믿고 따랐을 뿐 아니라 고객들에게까지 그 신뢰가 전달되도록 노력했으며 그것이 100년을 지켜온 회사의 기본이 됐다는 것이다.

공자는 제자 자공(子貢)에게 “정치란 먹을 것을 풍부히 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며 백성들이 믿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공이 그 중에서 한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고 묻자 공자는 “군사와 먹을 것을 차례로 버려라. 그러나 백성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설수 없다”고 대답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가히 신뢰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 닥친 느낌이다.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약속을 파기했다는 비난에서부터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에 이어 반값등록금에 이르기 까지 여야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국민들은 어느 당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기만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반값 등록금을 약속함으로써 여당 원내대표는 “황당스럽게도 우려했다”는

비아냥을 샀고, 2005년 교육부총리 시절엔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학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 원내대표는 오늘에 와선 반값등록금 주장에 앞장서고 있으니 어느때 말이 진짜냐는 의문의 소리가 백성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니



신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 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맛집 소개 프로그램 뒷돈거래 현실 고발 MBC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당해

방송사들이 국민들을 속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를 일이다.

5월 2일 전국 21개 개봉관에서 선을 보인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 쇼’는 방송사들의 변명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찬 것이었는지를 관객들에게 보여 주었다. 지난 5월 이 다큐 영화가 곧 극장에서 상영될 것이라



영화 ‘트루맛 쇼’의 스틸.

는 예고가 나오자 방송사들은 일제히 사실이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중에 MBC는 5월25일 “이 영화가 MBC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그대로 개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등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6월1일 서울 남부

지방법원은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이 영화는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해 방송에 소개될수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된 대본에 따라 연출된 내용이 실제 상황인 것 처럼 방송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

적해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MBC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영화는 극장상영이 시작됐고 관객들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방송사를 비난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한 관객은 ‘트루맛 쇼’ 홈 페이지에 “기만과 허위에 가득찬 방송의 실패는 정말이지 코미디였다”고 썼고, 다른 관객들은 “시원하다! MBC, KBS, SBS에서 꼭 방송해야 할 영화다” “방송국의 진실을 알수 있는 영화다” “트루 맛쇼, 맛집의 허위보다 중요한건 매체의 허위성이다” 등등의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반응들을 보였다.

우리는 이번 맛집 파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또다른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하다. 방송사들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많은 영세 프로덕션들은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됐고 그중 일부 종사자들은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만 셈이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맛집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대박을 노리고 돈으로 프로그램을 산 그들의 잘못은 크다. 그러나 그들도 또 다른 피해자의 한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지난달 필자는 미술랭 가이드의 맛집과 관광지 선정 과정을 소개한바 있다. 수차례에 걸친 암행조사 결과를 모아책에 소개하고 사후에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그 명성을 백년 이상 이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이다. 방송사들은 크나큰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트루맛 쇼’와 같은 불신의 늪에 다시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IBM 백년이 시사하듯 눈앞의 이익보다는 길게 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자세, 이와 같은 자세는 불신의 늪 속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사회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필자]

포퓰리즘 타류 편승하려는 人士는 안돼 人氣 떨어져도 所信 지키는 지도자 待望

6면에서 이어집니다.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번 투표에 시장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설사 민중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가 일시적으로 죽더라도 훗날 더 오래 살 것이다. 지금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소신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임하는 강단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망령과 같은 것이다. 그 부담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자손대대로 명예를 써우는 족쇄라는 사실을 젊은 세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까지 포퓰리즘의 타류에 의탁하려는 요즈음 과연 어느 지도자가 있어 이를 막을 것인가. 한나라당의 소위 신주류나 소장파의 일부도 복지포퓰리즘 대열에 합세하고 있는 판이다. 비록 표 몇 장을

얻더라도, 당장은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장래와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이렇게는 안된다”고 외칠 수 있는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내년에는 대선과 총선, 양대 선거가 있는 해다. 망국적 포퓰리즘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할지 선택은 현명한 국민의 몫이다.

이러한 국내적 소용돌이 속에 차기 대통령, 또는 차차기 대통령은 한반도의 급변사태 내지 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도 갖춰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국제사회에 나오기는커녕 핵무기를 부려잡고 더 더욱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인권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형편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쌍한 동족들을 지켜보고만 있기가 힘들 지경이다.

다음 대통령은 현 동북아의 역학구조 속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혜롭게 접

근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과 위대한 결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과연 이러한 비전과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차기 대선후보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총재는 ‘원칙과 신뢰’를 존중하며 매우 심지가 굳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짧은 어법으로 던지는 말 한마디는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듯 득표력에 대한 그의 파괴력은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존경과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과연 그것만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일까. 차기 후보가 너무 일찍 나서 현 정권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것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비상사태에는 비상한 움직임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번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물이라면 조그마한 계산보다는 몸을 내던지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

여야 한다.

3년 전의 ‘광우병 난동’, 최근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국가위기 때는 자신을 내던지며 나라를 구하려는 결단도 보여야 한다. 몇 표쯤 오르내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그가 이중차대한 이 시기에 나라를 끌고 갈 어떤 비전과 철학이 있는지 궁금하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진보파의 경험을 갖고 보수진영으로 들어 온 인물이다. 누구보다 서민의 사정을 잘 안다. 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 대선주자로서의 지지도가 낮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져 보인다. 현재로는 박근혜, 손학규씨가 대선후보로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있다. 어떤 돌발변수가 나타날지 모른다.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망국적 포퓰리즘의 격류에 국가의 장래를 망칠 것인가, 선진국으로 도약해 한반도의 전성기를 활짝 꽃피울 것인가, 국민들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장 입에 달콤한 사탕은 장래를 망칠 것이고 지금은 입에 쓰더라도 병을 고치는 약은 희망찬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필자]

나의 전립선 암 鬪病記

평소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던 내가 전립선 암에 걸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런 내가 지난 5월 24일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수술을 끝내고 6월 8일, 10여일 만에 퇴원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한다.

전립선 암이란 나이가 40-50이 넘으면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증세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 또는 전립선 암으로 나타나며 소변줄기가 가늘어 지거나 통증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의술이 발달하여 혈액 검사를 통해 PSA 수치를 알 수 있고 정상치를 넘으면 곧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투약하거나 시술을 받으면 된다.

나는 의학 상식이 부족한 탓에 평소부터 이런 관리를 너무나 등한시 하여 내가 전립선 암에 걸렸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 하기는 나의 경우도 당뇨병 때문에 수년전부터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과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봄 어느 날 진료차 병원엘 갔더니 혈당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밤에 자다 소변보러 몇 번이나 가느냐고 물기에 두, 세 번 정도 라고 했더니 그러면 검사를 받아보라면서 비뇨기과를 소개해 주었다. 검사결과(혈액 초음파) PSA 수치가 너무 높으면서 하루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해 보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4월 22일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다. 전립선 12군데를 떼어내서 검사한 결과 벌써 10군데서 암 조직이 발견되었다면서 수술을 권장했다. 하지만 담당 주치의의 의견은 연령이 75세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굳이 수술을 원하면 수술 후 회복가능여부를 철저히 검사한 다음 수술하겠다고 하면서 수술 날짜를 5월 26일로 잡았다.

수술방법은 일반 개복수술과 다빈치 로봇수술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로봇 수술이 정교하고 효과 또한 좋고 회복도 빠르다는 것이다. 한 가지 흠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어 수술비용이 비싸(본인부담 1,300만원)라는 것이다. 심사숙고 끝에 나는 수술비용이 비싸지만 로봇 수술을 택했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장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환자가 통증을 덜 느끼고 수술 흉터도 적다는 점, 둘째 출혈량 감소(개복수술의 10분의 1정도), 셋째 합병증감소, 넷째 보다 정밀한 접근이 가능하여 신경보존은 물론, 시술 후 성기능회복이 빠르고 배뇨기능역시 조기에 회복됨, 다섯째 손으로 할 경우는 손 떨림이 걱정되지만 로봇 수술은 확대된 영상을 통해 수술함으로써 신경 및 혈관의 보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송 두 빈

- 본회 회우
- 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 현 헤럴드 미디어 사외회장

나는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수술을 시작해 오후 3시 45분에 끝났고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돌아오니 4시 30분이었다. 장장 5시간이 걸린 셈이다. 내가 수술을 받는 동안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4-5시간 초조하게 기다리다 수술이 잘되었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함께 병실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지난 5월 30일 저녁엔 갑자기 심한 기침에다 가래가 들끓고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 X레이를 찍어보니 왼쪽 가슴에 가래가 많아 기관지를 누르고 있어 말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이른바 가벼운 폐렴(肺炎) 증세를 보였다. 호흡기 내과에서 폐렴치료를 병행하니 2-3일 뒤부터 열이 내리고 기침과 가래가 멎어 목소리도 다시 회복됐다.

병원에 입원하고 보면 가족들도 환자 못지않게 마음고생이 많게 마련이다. 내 경우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외아들(송경원·뉴욕주 맨해튼시 한인 침례교회 담임목사)이 나의 수술 소식을 듣고 20시간의 비행 끝에 급거 귀국해 수술결과를 함께 지켜 봐 주었고 매일 낮 동안(밤에는 전문 간병인이 수고해 주었다) 아내(최순자)와 함께 지성껏 간병하니 한편으로 흠족하고 마음 든든하기 짝이 없었다.

아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딸(송은정)과 사위(김준호·텍사스 오스틴 거주)는 아들처럼 나오고 싶었지만 비자 관계로 나올 수가 없어 매일 전화하면서 애절한 정을 나타냈다. 입원 기간 중 많은 친척과 친구들이 문병 차 다녀갔다. 오지 못한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도 전화나 전보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어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특히 아내의 헌신적인 간병에 충심으로 감사를 느끼며 사의를 표한다.

나의 외고집과 의학 지식의 무지 때문에 고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끝으로 많은 회우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던가. 모두들 자기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 대한연론인회가 매달 진행하고 있는 '건강 포럼'에 적극 참여 해 한분도 병원신세를 지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7]

여섯째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이 단축됨, 일곱째 양안 렌즈를 통한 3차원 영상을 구현, 상대적으로는 깨끗한 시야에서 보다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음(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입체감), 여덟째 수술하는 의사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수술할 수 있는 등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老年期의 눈 관리’ 특강 건강포럼 7월16일 개최

대한연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요건강포럼’이 이번 7월에는 ‘노년기의 눈 관리’를 다루기로 했다. 나이가 점차 들수록 보기에 불편해지는 눈- 어떻게 관리하면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강의 내용은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치료와 교정, 당뇨망막병증의 원인과 치료 등 노인 전반. 강의날짜는 7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는 역시 명동입구에 있는 ‘이운수 비뇨기과’ 홀이다. 연사는 푸른안과병원 김지택 원장(의학박사·사진)이다.



김지택 원장

6월강좌 ‘치아건강’ 대성황

한편 지난달 18일 ‘노년기 치아 건강해야 장수한다’란 제목으로 열린 토요건강포럼에는 평소보다 많은 회우들이 참석해 치아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사로 나온 라임나무치과병원 김인수 원장(치의과 박사)은 치과를 찾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아프다, 이가 없어서, 틀니가 안맞는다”고 호소하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이가 빠지고, 잇몸 뼈는 녹고, 점막은 얇아지고, 입안의 침이 줄어들어 얼굴모양도 달라지고 또 음식을 씹는 기능도 떨어져 삶의 질이 급속도로 나빠진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겐 특히 평소의 치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 김인수 박사의 강의 모습)

김 박사는 특히 노인들의 치아가 잘 씹는 이유는 치아를 닦더라도 대충 닦는 습관으로 치석이 생겨 치아 사이로 침입한 세균이 ‘독신’이란 똥을 싸기 때문이며,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이가 잘 씹는 원인이 되고, 특히 치아를 빼면 악관절에 변화가 생겨 치아를 받치고 있는 뼈가 녹아내려서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특히 노년에는 ‘구강건조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신질환이나 스트레스와 약물투입,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이라면서 침이 없으면 세균을 잡아낼 수 없어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미각, 씹는것, 구강위생, 의치 착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침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딱딱한 캔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데 하루 3000CC정도를 마시고 레몬에이드처럼 달거나 신 음식을 먹고, 바셀린같은 입술연고를 입술에 발라 보습을 유지하며, 가습기를 사용해 입으로 숨쉬기를 피하며 특히 키스를 하면 침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침에는 사람을 젊게 만들어주는 파로틴이 많으므로 여기 참석하신 어르신들 키스 많이 하시라해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김 박사는 혹시 치과에 가면 치아를 쓸 수 있는데 까지 쓰라는 말을 하는 의사도 있고 또 환자도 치아를 안 빼고 고칠 수는 없을까요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빼자고 하면 다시는 그 병원엘 가지 않거나 심지어 의사가 자주 이빨 빼자고 한다며 사잇꾼 의사란 소리까지 하지만 대개 이를 빼자고 할 때는 잇몸이 무너져 내리고 뼈가 녹아 내렸기 때문이며 이 상태를 그냥두면 옆에 있는 치아도 빨 위험에 처하며 결국 의치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씹은 치아를 그냥 둘 경우



6월 치아건강 강연을 하고 있는 김인수 원장.

치주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몸속을 돌며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혈액감염, 심지어는 조산아 출산까지 갖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박테리아가 아니더라도 치주염자체가 면역반응을 유발시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최근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로 많이 하는 경향이라고 말하고 잇몸 뼈가 있다면 98%는 다 끼어 넣을 수 있으며 뼈가 많이 없어져도 인공뼈를 이식하고 또 인조피부를 이용해 노후에 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요즘 시중에서 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는 치아치료제인 ‘인사돌’이나 ‘이가탄’은 비타민 C에 소량의 진통제등을 첨가해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치주질환 등 치아의 근본적인 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고가의 이 약들을 사먹지 말고 가격이 이보다 훨씬 싼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치아건강이나 또 가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호랑이가 자연사 할 때는 이빨이 다 빠져 굶어죽는 것이라며 혹시 어르신 중에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자주 체중이 빠진다면 치아가 부실해 영양 섭취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건강을 스스로도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 박사는 “한번 더 씹으세요” “아재 섭취를 많이 하세요” “ 잘 닦으세요 그러면 장수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김 박사는 자신의 치과 병원을 찾는 대한연론인회 회원에게는 특별 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원들은 벌써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2명의 회원이 참석해 오랜만에 토요건강포럼이 활기에 찼고 김 원장은 강의 도중 3분 피로회복 운동을 유도, 회원들이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는 등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다.

이어 회원들은 치아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한 후 자리를 인근 ‘생맥주와 치킨집’으로 옮겨 화제의 꽃을 피우며 즐거운 토요일 오후 한때를 보냈다. [7]

글·이보길 편집위원

당일치기 피서로 무더위를 이기자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돼 이달엔 소서와 초복, 중복이 다 들어있고 기상청 예보로는 울여름은 더위가 예년에 비해 더 극성을 부릴 것이란 예보다.

짧았던 시절- 그 바쁜 기자생활 중에서도 7, 8월엔 가족들과 같이 산보다는 바다로 떠나 행복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곤 했지만 이제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이 무더운 여름 어찌 보내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눈치 없이 자식들 피서 휴가길에 따라 나설수도 없고, 넓은 백사장, 작열하는 태양아래서 한여름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도 좋지만 숲속 그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원한 계곡도 피서지로 좋을 것 같다. 서울근교에 있어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계곡, 삼림욕장, 가볼만한 곳 등을 소개한다.

중원계곡 (양평)

양평 용문면 중원리의 용문사 동쪽 자락에 솟아있는 중원산 기슭을 흐르는 중원 계곡은 곳곳에 기암 괴석이 있고 옥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엔 높이 10미터의 중원폭포가 있어 풍취를 더하고 있다.(용산에서 용문행 중앙선 전철→용문역하차→용문시외버스터미널→중원리행 버스 종점하차)

백운산, 백운계곡, 선유담(포천)

맑고 깨끗한 물이 모여 이룬 선유담(이동면 도평리)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보여준다. 광암정, 학소대, 금명암, 금광폭포들의 명소가 있다.(동서울터미널에서 도평리나 백운동행 버스, 의정부역에서 138-5좌석버스)

백운동 계곡(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의 대표 골짜기인 북한산성 계곡과 백운동 계곡은 서울 시민들의 알뜰 피서지. 수도권에 자리하다보니 이른 시간부터 찾는 이들이 줄을 잇는다. 북한

서울근교 유명계곡 - 삼림욕장 안내

산 계곡은 비록 도심과 가깝지만 한적한 강원도 산골 못지 않은 산세를 품고 있다. 때문에 계곡 물소리 배경 삼아 탁족을 즐기기에 그만.(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출구 704, 34번 버스)

풍혈-동막계곡(경기 연천)

경기도 연천-파주 일원은 수도권의 앞

마당 놀이터 구실을 하는 곳이다. 접근성이 좋아 당일치기 바람쐬기 코스로도 안성맞춤. 그중 경기도 연천에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풍혈도 빼놓을 수 없다. 풍혈은 연천 재인폭포 가는 길 동막계곡 중간쯤에 있다. 깊이가 16m, 높이 2.2m의 천연동굴에는 여름철에도 얼음이 녹지 않을 정도로 찬공기가 흘러나와 추운 겨울을 연상케한다. (연천역 앞에서 버스타승 1일 4회 운행)

강화도 함허동천 계곡(인천쪽)

물줄기가 굽고 시원하며 마르지않고 계속 흐른다하여 함허동천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곳은 승용차로 서울에서 약 1시간 20분 거리. 계곡에서 쉬다가 심심하면 10분만 걸어나오면 바닷가가 짙 펼쳐져 있으며 갯벌에서 조개나 굴을 따먹는 재미도 좋을 듯. (서울 → 인천 → 강화 → 순으로 가면 동막해수욕장 못가서 함허동천 주차장이 나옴)



이 보 길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해설위원
- 독도 시사신문 논설위원장

용추계곡(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가평 읍내에서 승안리(용추계곡) 방향으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 이내에 용추계곡이 시작된다. 용추계곡 입구부분은 계곡형 방갈로 시설과 유원지 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용추계곡의 진짜 모습을 구경

할 수 있는데 사람하나 보이지 않고 오직 절경의 계곡만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가평읍에서 북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6km쯤 올라가면 용추폭포가 있고 용추계곡은 장장 10km가 넘는다고.(청량리 → 가평역 하차후 → 가평버스 터미널에서 용추계곡행 버스,)

덕고개 당숲(군포)

전국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혀 오래전부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내온 숲으로 굴참나무, 갈참나무, 너도밤나무 등 수령이 100~200년 된 고목이 양쪽에 늘어서 있다.(군포 대야역에서 수리신방향 갈치저수지 → 덕고개마을)

다음은 서울서 가까운 파주의 삼림욕장 몇 군데를 소개한다.

파주의 4대 삼림욕장은 감악산, 박달산, 초리골, 삼학산에 있다.

감악산 삼림욕장(적성면)은 경기5악

의 하나로 꿈을 만큼 폭포와 암벽을 두루 갖춘 곳이다.

임진강 황포돛배, 임진강에서 두지리메기와 빠가사리 매운탕들을 즐길 수 있다.(불광시의버스터미널 30번버스→적성종점 하차→ 25번버스 환승→감악산법륜사 입구 하차)

박달산 삼림욕장(광탄면)은 서울서 대중교통이용하기 편하고 삼림욕이나 등산, 온천욕도 할수 있는 곳.(불광버스터미널 31,33버스→ 금촌 백학→탐라국유일레저야 하차)

초리골 삼림욕장(법원읍) 얕으막한산들이 능선을 타고 이어지고 곳곳에 야생화와 아름다운 계곡이 있다.(구파발역 2번출구 31번 버스 탑승)

삼학산 삼림욕장 (교하읍)은 자유로와 한강, 김포를 바라보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다.(경의선: 서울 → 금촌역 하차 버스환승 → 삼학초등교 하차)

이밖에 서울 상암동에 있는 ‘노을공원’에서 바비큐를 즐기며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굽어보며 하룻밤 야영도 할 수 있다.(문의: 02-2115-7531, 02-3141-3345)

또 부천의 ‘아인스월드’도 구경거리로 좋을 것이다. 여기엔 피라미드, 버킹엄궁, 에펠탑, 만리장성 등 세계 25개국 109점의 유명건축물을 축소해 전시하고 있고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입체영상과 특수효과 구경도 할 수 있다. (문의: 032-320-6000)

끝으로 포천으로 가 ‘승진사격장’ (영북면 산정호수 인근)에서 우리 국군용사들의 화력훈련(탱크 사격, 대포 사격, 헬기 사격, 전투기 사격 등)모습을 관람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주일전에 예약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예약: 02-3669-3801, 3737) [☞](#)

- # 내년대선 야당후보 찍겠다 46.2%
- 여당후보 찍겠다 30.5%
- # 내년총선 현역의원 지지 28.7%
- 국회의원 교체 52.9%
- # 정당지지율 한나라당 25.1%
- 민주당 21.4%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야권정당 합산 지지율 28.6%, 한나라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 보수정당 합산 지지율 27.8%. 현역의원 교체요구 지역별 비교: 강원·제주지역 67.9%, 서울 57.0%, 인천·경기 55.5%, 부산·울산·경남 52.8%, 광주·전남북 49.3%, 대전·충청 45.5%, 대구·경북 42.3%.

아산정책연구원이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30% 초반대로 떨어졌으며 이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장년층과 노년층이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31.8%로 4월 조사 때 36.0%보다 4.2%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1월 조사 44.4%와 비교하면 12.6%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올 1월 45.1%에서 5월 25.9%로 넉 달 만에 19.2%포인트나 떨어졌다. 50대는 같은

기간 19.6%포인트, 60대 이상은 15.5%포인트가 하락했다. 20대 이하와 30대에서도 올해 1월 조사와 비교할 때 각각 4.0%포인트, 3.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제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나쁘다’는 응답 비율은 20대 이하 47.9%, 30대 47.8%, 40대 59.1%, 50대 56.1%, 60대 이상 55.7%로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했다.

‘한나라당=성장, 민주당=분배’라는 기존 인식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한나라당 34.9% 민주당 23.6%로 나타났다. 올 1월엔 한나라당이 40.0%로 민주당 13.9%보다 3배 가까이 높았지만 두 정당간 간격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소득 재분배를 가장 잘

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천 상 기

- 본회 회우
- 전 일간스포츠 편집부국장
- 경기도 초빙교수

할 수 있는 정당’으로는 민주당 32.3%로 한나라당 22.0%를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남북관계와 인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해선 한나라당 33.1%와 민주당 33.6%가 엇비슷했다.

4·27 재보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 정채성 논란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20일 황

우여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야당 주장을 따라하기 보다는 한나라당대로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신당권파로 떠오른 소장파는 “중도로 가야 한다”며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구주류인 친이계는 “보수의 가치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소장파 핵심인 정태근의원은 소장파에서 주장하는 ‘보수 정책기조의 대전환’은 민주당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라며 “채신파의 총정에 대해 대통령이 귀를 열고 참모들도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서는 “그 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답게 국민, 언론, 다른 정치인을 상대로도 일반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이 직계인 조해진의원은 “선거 승패의 키인 중도를 끌어 안아야겠지만 당의 중심을 아예 중도로 이동해버린다면 ‘민주당 2중대’란 소리만 듣고 재집권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500만표 격차로 승리했던 것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각종 맞춤형 실용정책으로 중도를 우리 편으로 끌어와 가능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보정책을 내놓기 시작하면 다들 ‘그 동안 민주당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보다 일관되게 진보정책을 펼쳐온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 말도 안 먹히고 좌우로 찢어지는 친이… 한나라당의 위기 탈출은 산 너머 산이다. [☞](#)

고향사랑... 墨硯 침잠... “孝의 한류 바

“제 보다 원로 언론인들도 계신데, 내년쯤 안 될까요?”

살버 파이팅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權赫昇(79) 선배에게 전화 드렸더니 완곡하게 사양한다. 어렵사리 협의 끝에 지난 달 14일 낮, 교보문고 후문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이번엔 장소가 어긋났다. 환철한 키에 선비풍인 권 선배는 교보빌딩 후문 로비에서 기다렸고, 인터뷰어는 후문 도서매장에서 찾아 해마다.

도서매장 고전 코너에 들러 사진촬영을 한 뒤 프라자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여곡절만큼 인터뷰 시간도 길었다. 대학(서울대 상대) 졸업을 앞두고 1956년 한국일보 공채기자로 입사하여 편집국장을 세 차례 역임하고, 서울경제신문 사장, 한국일보 상임고문을 거치며 다른 언론사로 옮긴 적도 없다. 정·관계의 유혹에도 초연하게 45년 동안 언론의 길을 걸었다. 흔히 필부필부(匹夫匹婦)들의 삶도 책 몇 권은 된다고들 말하는 데, 팔순을 앞둔 언론인의 삶을 풀어내기란 만만찮다. 고향 사랑과孝 정신 함양, 喜壽書展을 연 墨硯, 언론 외길 45년을 ‘인생 3막’으로 요약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생 3막 : 고향, 꿈엔들 잊힐리아!

누구나 首邱初心이라지만, 惠田 권혁승 선배의 고향 사랑은 남다르다. 인터뷰를 마치고 곧장 고향 강릉으로가 주말께 귀경한다는 것. 7월 15일 강릉에서 열리는 ‘思親文學 강연·세미나’와 ‘백교문학상’ 준비로 바쁘다고 한다.

- 思親文學 강연 및 세미나의 취지와 배경은?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가 방한하여 한국이 인류문화에 기여한 것은孝 사상이라고 언급했어요.孝 사상을 세계적인 사상으로 전승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사임당과 율곡의 이름다운孝의 정신이 살아 있는 강릉을 ‘思親文學의 搖籃’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강릉을 효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효 사상의 세계화로 효의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사친문학으로 노벨문학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릉을 사친문학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오래 전부터 해왔다. 2009년 고향 마을 사유지에 사비를 들여 전통 정자 思母亭을 짓고, 詩碑와 조각이 어우러진 정자공원을 조성하여 강릉시에 기증했다. 사모정이 들어선 ‘한다리 마을’의 행정 주소는 강릉시 경포동 죽헌리. 오죽헌의 뒷마을이다. 한다리의 지명은 음짓마을과 양짓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에 나무다리가 있었고, 달밤이면 희게 보여 ‘흰 다리’로 불렸으나 음이 변해 한다리가 됐다는 것 생각는 저수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 ‘사모정’ 명칭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데...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 소 물고 나무 지계를 지며 십리 길의 학교를 다니면서 꿈을 키우던 고향의 옛 모습은 사라졌으나 한다리와 성황당 앞길을 오가던 어머니의 웃는 모습은 아직도 나를 반겨 주는 것 같다”며 지긋이 눈을 감는다. “사모정이 미래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에게 고향을 사랑하고 마을의 전통을 지키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6>

회우초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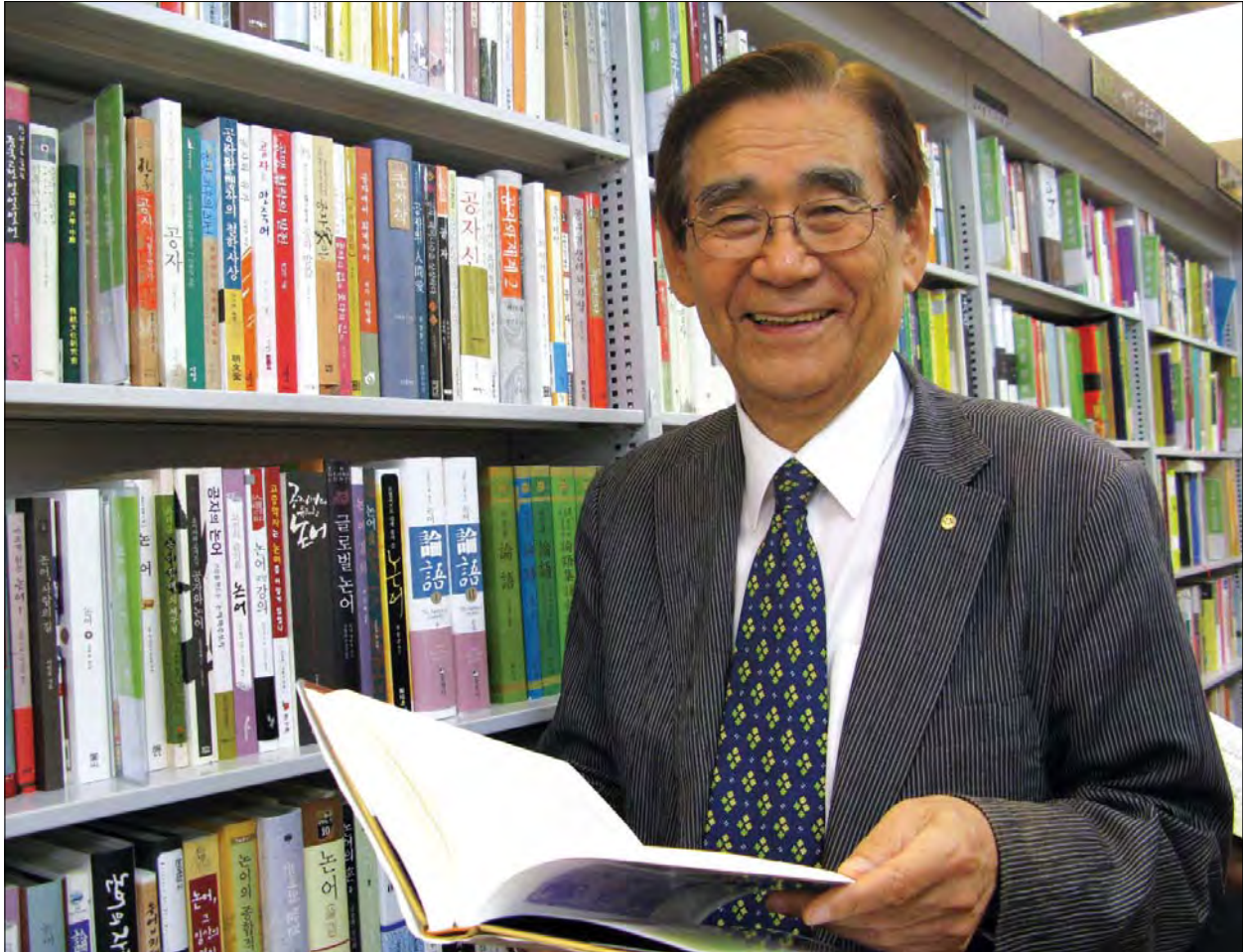
權赫昇

인터뷰 글·사진 이규

며, 효 사상을 함양시키는 정신적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 ‘백교문학상’ 제정도 효 사상과 고향사랑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지난해 문인들로 구성된 백교문학회를 창립한 뒤 제1회 백교문학상을 제정하여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주제를孝 사상을 고취하는 작품으로 한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시와 수필 500여 편이 응모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제2회 백교문학상은 오는 8월 30일에 발표하여 문화의 달인 10월 1일에 시상하려고 합니다” 백교문학상을 통해 효친사랑이 높아지고 애향심이 불



교보문고 도서매장 고전 코너에서 포즈를 취한 권혁승 선배.

강릉에 思母亭 공원 조성해 市에 기증... ‘思親文學’ 70대에 서예시작 5개書體 섭렵... “요즘 기자

붙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사모정 건립 축시를 쓴 이충희 시인(강원여성문학인 회장)은 “惠田 선생의 고향 사랑에 대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惠田 선생은 1992년 재경 강릉시민회를 창립, 초대회장을 맡아 애향심을 모으는 역할에 앞장섰다. 회원들의 글을 모아 ‘고향 사람들’, ‘어머니 아! 그 리운 어머니’, ‘대관령 옛길을 걸으며’ 등 3권의 고향 수상집을 펴내 고향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한다.

惠田은 한 때 강릉상고(현 강릉 제일고) 총 동창회장을 7년 동안 맡으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200여명의 후학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등 모교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앞서 평생 동안 소장해온 장서 4400여권과 서화 60점, 도자기 20점을 강릉시립도서관에 기증하여 화제가 됐다. 대관령 옛길 들머리에 세워진 ‘사임당 사진 시비’도 그가 발의하여 건립되었으며 오가는 길손들이 잠시나마 어머니를 기리는 명소가 됐다. 그는 고향은 한마디로 ‘그리움’이라고 말한다.

#인생 2막 : ‘下心’에 墨硯 새기다

-2년 전 서울 백악미술관에서 ‘회수서전

(喜壽書展)’을 열었는데 서예는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70대에 접어들면서 서예를 시작했으니 출발은 늦었죠. 원래 비독이 취미였으나 승패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책과 떨어져 묵연(墨硯)을 가까이하게 됐어요.” 그는 회수서전 도록 인사말에서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변잡한 세상사에 대해 이제 마음을 내려(下心)놓으려고 한다’고 밝히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스스로의 삶을 담금질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의 일환으로 서예전을 열었다고 한다.

죽마고우인 최무규 수필가는 “고회를 넘긴 나이에 붓글씨를 배워 개인전을 여는 집념, 남들은 10년이 초보라는데 5년 만에 전, 예, 해, 행, 초 5개 서체를 두루 섭렵한 기력, 그야말로 無爲自然 사상에 심취한 단계를 넘어 몸소 실천하는 단계에 접어든 삶의 역경이 담긴 전서화라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졌다”며 “흔히 외우(畏友)라 하지만 정말 이 친구에게는 외경(畏敬)의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의 墨硯심취는 사군자로 이어져 수묵



묵향에 빠져 붓글씨를 쓰고 있다.

요람 일으키고 싶다”

赤昇

-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 서울 경제 사장
- 전 한국 간행물윤리위원장
- 전 한국 경제 전략연구원 이사장

섭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답재에 선비정신을 담는다.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난초의 곡선과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의 고고함, 바람결에 흔들리는 댓잎, 향기 짙은 국화를 보면 무아의 경지에 빠져든다”고 설명한다. 오랜 활자생활에서 자연에 귀의하듯 흑백의 濃淡에 스스로를 담는다. 그는 “붓글씨를 쓰고 사군자를 치며 묵향에 빠질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인생 1막 : 45년 언론외길 걷다



고향 강릉에 ‘思母亭’을 짓고, 詩碑와 조각이 어우러진 정자공원을 조성하여 강릉시에 기증했다.

‘문학’ 요람으로 ‘패기 부족’ 질타

화제가 언론계로 넘어가자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권혁승 선배는 언론계를 떠난 뒤 ‘한국경제전략연구원’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있지만, 그는 “언론인이란 호칭을 가장 선호한다”고 말한다. 10여 년 전에는 후배기자들이 그의 ‘기자 40년’을 기려 기념회를 헌정한 언론사에서는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 “한국의 격동기를 언론인으로 살아오면서 ‘역사란 무엇이고 그 안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기간동안 유신 긴급조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남북적십자회담, 12·12와 언론통폐합, 문민정부 출범 등 말 그대로 격랑의 세월이었다.

-한국일보에서만 근무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시다시피 유신시절 언론의 간섭은 탄압과 마찬가지로 많았어요. 신문기자들도 민주화를 요구하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당하는 고통을 겪었고요. 당시 한국일보는 당국으로부터 해직 대상 리스트를 받았으나 해직시키지 않고 포용했습니다. 그 결과 금융제재를 받기도 했지만 한국일보만 ‘해직언론인 투위’라는 간판이 걸리지 않

았어요.” 그러나 1980년 언론통폐합에 따라 서울경제신문이 폐간됐으나 노태우 정권 출범 이후 복간작업에 참여했고, 서울경제사장을 역임했다.

-당시 한국일보가 정상의 신문으로 자리잡은 힘은 무엇입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가 성장의 기폭제였다고 판단합니다. 백상 장기영 社主는 정초 때면 전 사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인화단결을 강조했어요. 기자들은 언제라도 간부 집을 허물없이 드나들며 소통의 시너지 효과가 신문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많은 특종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주가 금융인으로 경제에 해박했고, 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어지는 근대화과정에서 경제부 기자로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때는 신문, 통신, 방송 공동취재단장을 맡으셨지요.

“그 때만 해도 남북적십자회담은 분단 이후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외신들은 휴전선을 넘어 평양에 가는 것은 달나라에 가기 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메라를 메고 대동강 문화회관에서 열린 평양회담장과 평양주변을 취재할 때 북측 인사가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 감시를 했어요.”

김일성대학을 가기로 합의했으나 갑자기 일정을 바꾸어 만경대를 참관하기 위해 버스를 뺐는데, 북한라디오 방송은 남측인사들이 만경대 참배를 끝내고 감격했다고 보도하여 고소를 금지 못했다고 그 시절을 회고한다.

요즘 신문과 기자들에 대한 소회를 묻자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 “신문의 비판기능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자들은 패기가 부족하다”고 질책한다. 옛날에는 아침도 먹지 않고 장관이나 정치인의 집을 찾아가 뉴스원과 식사를 하며 취재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열정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는 것. 또한 “모든 기사는 왜곡되지 않아야 하고, 국가와 국민의 나침반 역할을 신문이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역사가 풍랑을 만나지 않고 순항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언론인으로 격동기를 관통하면서 시련과 고통도 많았지만 살아온 세월은 아름답고, 최선을 다했기에 보람도 크고 행복했다”고 마무리한다.

가벼운 트레킹과 등산으로 건강을 다지

生活斷想

日本の 整復師

없는것이 있다면 서러워할 우리나라에 아직 싸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일본에서 노인과 부녀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번창하고 있는 정골원(整骨院)이다. 정골원은 유도정복사(柔道整復師)가 수기(手技)요법인 유도정복술로 몸의 비틀림을 당기기 누르기 풀기 등으로 뼈 관절 근육을 본래의 형태로 되돌리는(整復)고 정술(固定術)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알다시피 일본은 유도의 나라로 군경(軍警)이 되면 무엇보다도 유도를 잘해야 진급이 빨랐다. 유도정복술은 일본 고래의 전통의료로 학문적으로 체계화된적도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 세러피(Judo Therapy)로 인정한 후 부터 날개를 펴고, 1992년 부터는 일본정부가 정복사에게 국가자격증과 면허증을 내주면서 부터 정골원이 부쩍 늘어났다.

내가 정골원에 관심을 가지게된 것은 가정 게임기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재벌이 된 고나미(KONAMI)가 사업이익의 사회환원으로 시작한 고나미스포츠클럽 오사카 교바시점(京橋店)에 회원가입하면서부터였다. 한주일에 이들은 집(GYM)에서 근육트레이닝을 하고 나머지 날은 풀에 들어갔다. 레인이 여덟개 있는 풀장에는 개인으로 해엄치는 자유수영레인과 시간을 정해 그룹이 해엄치는 레슨반 레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잘 살펴보니 비슷비슷한 사오십대의 남녀 스위머 10여명이 지도원의 지시아래 해엄치고 있는 팀이 마음에 들었다. 이 그룹은 상 중 하의 하급반인데 나도 그 속에 끼어들어 45분 동안에 1천미터 전후를 해엄치는데 도전했다.

멤버들은 레슨에 들어가기전 10분간을 스팀 채난실(採暖室)에서 몸을 데운다. 뭉게뭉게 하얀 수증기에 둘러싸인 한창때인 여자스위머들이 실한 몸매의 흠어지지 않은 라인을 증기의 흐름에 맡기면서 서서히 체온을 올린다. 그녀들은 날마다 삭덕공론을 즐겼는데 화제는 수영후에 들리는 정골원 얘기가 태반이다. “30분 가량 몸을 풀고나면 그 만 노곤노곤해지는게 극락이야” “보험에 들어 참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거야...” 흘러버릴수 없는 이야기들이다. 정골원엔 한번쯤 둘러볼 값어치가 있는 곳이란 말은 자주 들었으나, 9·28 서울수복후 서울거리에 범람했던 접골원(接骨院)의 살벌한 쇼윈도 광경이 미리 떠올



김귀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라 주춤하곤 했었다. 이제 그 이미지는 스팀 채난실에서 부지불식간에 들은 달콤한 소리에 밀려 멀리 사라져 갔다. 당시 살던 동네에서 제일 큰 정골원이 M정골원 이었다. 베드수가 10여개되고, 내부구조는 우리나라 경락마사지센터와 비슷한데 적외선 조사기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먼저 문진표

(問診表)에 ‘50견(肩) 및 척추관(脊椎管) 협착증’이라 적고 빈 베드에 가 누었다. 잠시후 “잘 부탁드립니다. 나카지마(中道)라고 합니다” 라면서 다가온 젊은이는 20대 중반의 중기에 다부진 몸가짐으로 시코쿠(四國)의 도쿠시마(徳島)현 출신이라고 했다. 그는 고향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오사카(大阪)로 나와 유도정골사 전문학교를 3년간 다닌후 국가시험에 합격, 이길에 들어와 3년째라고 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관절의 뽀 타박 골절등의 치료는 보험으로 그 이외는 실비치료 라는 것이다. 내 문진표를 본 그는 우선 전신의 근육과 관절을 당기고 누르고 풀면서 아프거나 기분 좋게 느끼는 부분, 스트레스가 걸리는 정도 등 상태를 그림으로 해설한 인체해부도를 만들었다. 한시간 가까이 걸려서 만든 해부도로 다음날 부터는 약 30분이면 시술이 끝난다고 했다. 치료비를 치르고 나오니 날아갈듯 몸이 가벼웠고, 기혈(氣血)의 흐름도 순조로웠다.

다음날도 풀장에서의 귀로에 M정골원에 들러 나카지마군의 시술을 받았다. 도중,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사이에 벌어졌던 안마사 자격문제 시비가 머리에 떠올라 일본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넌지시 물어봤다. 안마사와 정복사의 일은 비슷비슷하지만, 경락(經絡) 원리와 정복(整復)이론은 다르다는 것. “우리는 안마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폐도 끼치지 않는다. 그들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대답이었다. ‘그러니 무슨 싸움이 일겠느냐’는 묵시였다. 분명하게 말꼬투리를 안남긴 그의 언행이 어떤지 의연스럽게 보였다. 그리고 그의 시술은 더욱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듯 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나눔의 문화의 보편화에 애를 쓰고 있다. 그 한편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로 소란스럽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걱정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회는 언제 올 것인가.㉞

며 “바쁘게 살다보니 아플 틈도 없다”며 웃는다. 술과 담배는 항공기사고를 당한 뒤 끊었다고 한다. 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 은탑산업훈장,

동국언론상을 받았다. 저서로 ‘재벌들’ ‘대통령의 경제학’ 등을 펴냈다. 부인 韓英淑(75) 여사 사이에 1남 1녀. 장녀 志炫씨는 주부. 장남 純一씨는 대학교수이다.㉞

〈말산업 육성법〉 제정을 축하합니다
www.kra.co.kr

KRA 한국마사회



국민이 더 건강해질 거라는 말(馬)

자연이 더 깨끗해질 거라는 말(馬)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는 말(馬)

웃음이 더 커질 거라는 말(馬)

말이
대한민국을
웃게 합니다

말산업,
대한민국 미래의
힘입니다!

회우들이 펴낸 新刊

윤재홍 회우 ‘아프리카 추장이...’

윤재홍(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회우가 지난 6월 28일(화)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방송기자 30년과 대학교수 8년의 현장보고서인 ‘아프리카 추장이 되었다-꿈 그리고 희망’ 출판기념회와 서예전시회를 열었다.



화들을 현장감 있게 회고 하고 있다.

저자는 또 국내의 다큐멘터리 보도특집과 선진국의 자동차 문화와 선진국의 국회 운영과 정치 등 세계 각국 해외 보도특집 10여 편의 기획과 취재, 제작 등 보도특집 제작기법과 취재현장에서 일어났던 각종

일화도 소개했다. 또 윤회우가 지난 2004년 KBS 정년을 3개월 앞두고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공채 시험에 합격, 2004년부터 8년 동안 교수생활을 하면서 강의 준비와 학생들의 교수 평가 등 교수가 겪었던 학문의 길과 제자들과의 현장실습교육 등 방송기자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해 강의하고 13명의 제자들과 사이에 얹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눈길을 끈다.

책 제목 ‘아프리카 추장이 되었다’는 저자가 경찰기자시절 서울 삼각산 사이비종교 자연 파괴 고발 특종보도로 특종상을 받은 뒤 KBS사회부 회식 자리에서 ‘아프리카 추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데서 착안 것이다. 여자와장실까지 뒤져가며 발굴해 낸 필로폰 마약중독 실태 보도특집 특종으로 한국기자상을 받은 일화를 비롯, KBS 보도국 데스크시절 제주도 KAL기 폭발

윤재홍 회우가 펴낸 ‘아프리카 추장이 되었다-꿈 그리고 희망’은 저자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취재하면서 성난 시위대들이 편파방송을 일삼는 KBS기자인 자신을 지목해 항의를 하는 등 취재 중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일과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못하고 취재수첩에 기록한 상세한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저자는 특히 이 책에서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과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정치부 기자로 정당과 국회, 국무총리실 등을 출입하면서 윤보선 전 대통령 특별 인터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7명의 전·현직 대통령과 기자로 만났던 에피소드에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김종필 전 공화당 총재와 김상협, 고건, 이한동,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장관, 국회의원 등 30여 명을 만나 취재했던 일

오근영 회우 ‘아! 선생님아...’

오근영(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상무) 회우가 ‘어느통신기자의 회고록 아! 선생님아...’를 펴냈다. 평생을 통신기자로 살아온 저자가 소년시절 춘천에서 살면서 겪은 6·25전쟁 참상과 1950~70년대 한국의 통신사 실태를 엮은 것이다.



모든 전선이 힘없이 무너지는데 유독 3일 반을 버틴 춘천의 제6사단 장병들의 선전, 공산군 치하 3개월, 중공군 점령하 2개월 반, 유엔군의 반격, 중공군의 참전 등 6·25전쟁의 흐름을 간략하면서도 충실하게 기록했다. 6·25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

저자는 11살 초등학교 6학년때 춘천에서 6·25전쟁을 겪었다. 춘천은 도심에서 38도선까지의 거리가 12Km에 불과 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춘천에는 북한군과 중공군이 4번이나 드나 들었다. 이에 따라 춘천 시민들은 흑독하게 6·25전쟁에 시달려야 했다. 수많은 인명이 비명에 가고 시가지는 초토화 됐다. 저자의 집도 학교도 타 버렸다. 그래서 저자는 가장 끔찍하게 6·25전쟁을 겪은 사람의 하나가 됐다. 특히 이때 막 소년기에 접어든 저자는 이때 겪은 참혹한 경험을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한다.

이 책은 저자가 겪은 이같은 전쟁 참상에다 전쟁사를 섞어가며 엮었다.

들이 읽으면 6·25전쟁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950~70년대 한국의 통신사와 통신기자에 관한 얘기를 썼다. 해방되던 해부터 생기기 시작해 많을 때는 10여개의 통신사가 난립,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상황과 그러다 보니 적자에 허덕이며 통신사 다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실태등을 소상하게 다뤘다. 게다가 통신사라는 것이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악전고투를 해야 했던 통신기자들의 애환을 실감있게 다뤘다. 통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사고 특종과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호화관사 고발, 사람의 뺑가루 밀매 현장 고발 등 각종 사건 사고 특종 뒷이

얘기는 현대한국언론사의 산 증인이자 소중한 언론 사료적 가치로도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출처]

老人 지하철 무임승차 ‘지문 통과제도’ 어떨까



김휴선

- 본회 회우
- 전 MBC보도국 부국장
- 현 KOBACO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간 총 1조 51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운송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득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길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임승차 대상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평균 운임은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하면 736원으로 운송원가 1천 120원의 66%에 불과하다”며 “요금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고 무임승차 손실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 만큼 지하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가 됐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지하철 적자운영 이유를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주요 원인이라고 들이댄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이유가 약하다. 서울시는 먼저 지하철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짜내는 방안과 모든 공공기업이 그렇듯이 지하철 양 회사도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 채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서도 정 안될 경우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근 인구센서스(census)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미 고령화 사회

를 벗어나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령화 사회는 노인이 7% 이상일 때, 고령사회 14% 이상, 초 고령사회 20% 이상) 따라서 지하철 무임승차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지하철 적지도 늘어날 것이 뻔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은 지금껏 6·25전쟁과 산업화, 월남전, 독재체제와 민주화운동이란 격동의 세월을 살아왔다. 이들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세대에게 국가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묻고 있다. 노인들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의료비도 절약된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해줄 책임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사회에서 노인의 삶 또한 행복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그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생각한대로 무임승차자의 연령을 높인다면 그만큼 노인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나마 무임승차 덕분에 소외된 노인들은 친구도 만나고 즐거운 나들이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고 있다. 요즘 노인들이 찾는 곳은 주로 멀게는 춘천, 천안, 의정부 등지이며 가까운 곳은 종교공원 등이다. 작년에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는 14조 588억원 이었고 금년 1·4분기만해도 벌써 3조 4472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늘어나는

15면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운송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들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고 현행 기본요금도 인상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와 인천시 등, 관련기관과 실무적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만약 노인들의 ‘무임승차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을 국비로도 보전 받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길’ 만이 적자를 줄이는 데 최상의 대책인가 이에 대해 논의(論議)해 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문제와 일반 기본요금을 1천원에서 200원내지 300원을 인상하는 문제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서울메트로(1~4호선)에서 3천 482억원,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2천 266억원 등 총 5천 748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는 2천 227억원으로 전체 운송 수입의 17~18%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양 공사의 누적 적자가 2조 2천 6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지난해까지 5년

溫故知新

비운의 명장 尹瓘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윤관은 전쟁에서는 이기고도 나약한 문신들의 정치적 흥정 때문에 패장으로 몰린 비운의 장군이었다.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조공을 바칠 터이니 윤관이 점령한 9성을 돌려 달라.”는 여진족의 간계에 넘어간 조정의 나약하고 썩어빠진 문관들이 술한 피눈물을 흘리며 탈환한 고구려의 옛 땅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는 한편, 윤관까지 패장으로 몰아 버슬과 공신 호를 박탈했던 것이다.

군사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고, 총검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꼴은 예나 이제나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나라가 문약(文弱)에 빠지면 국가의 위기를 부르는 법이다.

윤관은 문종 27년(1073)에 진사시에 급제하고, 그 이듬해에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서경유수관관·전중시어사 등 여러 벼슬을 거쳐 예종 원년(1095)에는 요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데에 이어, 숙종 3년(1098)에는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문관이었던 그가 야전군 총사령관 격인 동북면행영병마도통으로 임명되어 제1차 여진정벌전에 나선 것은 숙종 9년(1104) 2월이었다.

윤관이 출정하기 전 해에 여진은 완안부(完顔部)에서 우야소(烏雅束)라는 걸물이 부족장이 되면서 고려의 동북면(함경도)까지 쳐들어왔다. 이에 고려는 임간(林幹)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여진 정벌에 나섰다. 임간은 1104년 2월에 벌어진 싸움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그때 그의 목숨을 구한 이가 추밀원 별가 척준경(拓俊京)이었다.

그래서 숙종은 임간을 파면하고 윤관을 병마도통을 삼아 여진을 치게 했다. 그러나 윤관의 이 제1차 여진정벌전도 군사력의 열세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일단 휴전을 맺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기동력이 훨씬 뛰어난 여진족에게 군사의 절반을 잃고 포위당했다가 임기응변으로 화전을 약속하고 치욕스러운 철수를 했던 것이다. 개경으로 돌아온 윤관의 건의에 따라 그해 12월에 동원령을 내려 병력을 증

강하고, 별무반(別武班)이란 특수부대를 창설하여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다. 별무반은 여진족의 빠른 기동력에 맞설 기마병이 중심이었다. 또 한편, 기병과 보병 외에 특과대(特科隊)라고 하여 화공과 파괴를 전담하는 부대도 두었다. 또 젊은 승려들을 징발해 항마군(降魔軍)을 구성하기도 했다. 따라서 윤관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정규군 특수부대를 창시한 인물이었다.

예종 2년(1107) 10월 병마원수에 임명된 윤관은 부원수 오연총(吳延寵)과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그해 12월 북정에 올랐다. 국경에 이른 윤관은 포로로 잡고 있던 족장들을 풀어주겠다면서 여진족을 유인했다. 그러자 여진 족장 고라(古羅) 등 400여 명이 고려군 진영에 나타났고, 윤관은 잔치를 베풀어 이들이 취하자 모두 목을 베어 버렸다. 윤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공세를 펼쳤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여진족 4천 650명을 죽이고 730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듬해 윤관은 오연총과 함께 8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여진정벌에 나섰다. 대군을 5개 군단으로 나누어 북진한 윤관은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던 현재의 함경도 지방 대부분을 점령하여 6개 성을 쌓고 남쪽의 백성 7만여 호를 이주시켜 정착토록 했다. 그리고 함주에 대도독부를 두어 점령 지역을 통치하게 했다. 이듬해에는 3

개 성을 더 쌓았으니 9성이 함주를 비롯, 영주·북주·웅주·길주·통태진·승녕진·진양진·선화진 등이었다. 개경으로 개선한 윤관 원수에게 임금은 진국(鎭國)이란 공신 호와 수상인 문하시중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여진족이 끈질기게 덤벼들어 윤관은 개선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출전, 적과 맞서야만 했다. 윤관의 고려군을 무력으로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다고 여긴 우야소는 계략으로 난국을 타개하기로 작정했다. 여진 사신은 고려 조정에 이런 화평 조건을 제시했다. “앞으로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터이니 우리 땅을 돌려주소.” 이는 윤관이 점령한 9성을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참으로 뻔뻔한 소리였지만 조정 공론은 나약하고 무능한 문신들의 온건론이 대세를 좌우해 술한 싸움과 수많은 장병의 피땀으로 되찾은 고구려의 옛 강토를 되돌려주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전쟁에선 이겼으나 정치적 흥정 탓에 패전이 된 셈이었다. 윤관의 비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무식한 자가 말이 많고 무능한 소인배의 재주가 오로지 남의 공로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다. 그동안 임금의 곁에서 사람의 장막을 치고 향락만 일삼던 문관들은 한술 더 떠 윤관을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 군사들만 희생시킨 패군 지장으로 몰아붙였다. 어리석고 심약

한 임금은 그들의 성화에 못 견뎌 윤관과 오연총이 개경에 돌아오기도 전에 그들의 지휘권을 회수해버렸다.

썩어빠진 문신들의 중상모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라에 손해를 끼친 윤관을 옥에 가두고 벌을 주어야 한다고 임금에게 졸라댔다. 윤관의 인품을 잘 알고 있던 예종은 “두 장수는 마음대로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명령대로 출전한 것이요, 승패란 병가지상사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이니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도 썩어빠진 문관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기에 하는 수 없이 벼슬과 공신 호를 박탈했다.

다음해에 예종은 자신의 조치를 후회하고 다시 문하시중 벼슬을 주고 불렀으나 윤관은 사양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임금이 이를 듣지 않자 다시 벼슬을 내리고 불렀지만 윤관 또한 계속 사양하고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5개월 뒤인 예종 6년(1111) 5월에 비운의 명장 윤관은 천추의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 당시 71세. 윤관의 시호는 처음에 문경공(文敬公)이었으나 인종 때에 문숙공(文肅公)이라고 고치고 예종의 사당에 배향했다. 천추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윤관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잠들어 있다.

윤관의 비극은 그의 개인사로 끝나지 않았다. 사후 4년째인 예종 10년(1115)에 여진족은 우야소의 뒤를 이어 아골타(阿骨他)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타났다. 아골타는 전 여진 부족을 통일하여 금나라를 세우고 황제를 칭했으며, 2년 뒤에는 그 동안 신하로 복속하던 고려에 대해 형제관계를 요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다시 8년 뒤인 인종 3년(1125)에는 요나라를 멸망시킨 뒤 고려에 사신을 보내 군신관계를 강요해왔다. 지하의 윤관도 통곡할 노릇이었으나 그동안 무를 천시하고 문을 우대하던 고려 조정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국리민복·부국강병은 문무의 조화로운 발전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4]

14면에서 이어집니다.

추세다. 물론 우리나라 노인 전체가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65세에서 70세까지 유료로 한다면 그 만큼 노인들의 활동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운동량부족으로 의료가 더 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난번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 초기 기자회견에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했다가 노인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유명무실하게 끝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때 김 총리의 진의(眞意)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실은 “꼭 ‘노인 카드’로 타야 할 사람만 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일부 대신 사물을 한다”는 뜻이었는데 차마 이 말은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무임승차 카드’가 문제가 많다고만 두루뭉실하게 한 발언이 잘못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는 이 기회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미국이나 외국처럼 공항을 들어 갈 때 ‘지문통과(指紋通過)’를 하는 것처럼 우리 노인들도 지하철 입구에 들어갈 때 ‘지문통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본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카드’ 분실우려도 없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종전에 지하철 입구에서 일일이 얼굴을 확인하고 표를 받아 간적이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입구에 쌓아 놓은 지하철 표를 무조건 가지고 타도록 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그것도 유실(lose)이 많아 지금은 서울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니어패스(무료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앞에서 얘기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지문으로 지하철 출입’을 하는 제도를 권하고 싶다. 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통과 할 수 없으므로 김 총리의 말마따나 ‘꼭 타야 할 사람만’이 탈 수 있기 때문이다. [4]

韋庵 선생 서훈 취소 철회 촉구
기념 사업회, 범국민 캠페인

정부가 지난 4월 위암 장지연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결정한데 대해 뜻있는 많은 언론인들과 학자들이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언론인과 학계가 중심이 돼 장지연선생의 독립유공자 취소결정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암 장지연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일제 식민지치하 우리 언론의 불씨로 되살아나 민족 항일 언론의 큰 물줄기를 이루었으며 해방이후 반독재와 민주화를 지향한 한국 언론의 원천이요, 언론인

들의 자존심이라는 점에서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는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이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뜻있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입장이다.

이 운동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장지연기념회’(회장 이종석·본회회우)는 특히 “장지연선생은 한국 근현대 언론사의 사표요, 자랑으로 높이 존중되어온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한국근현대 언론사는 장지연선생을 빼 놓고는 언급 할 수 없으리만큼 선생의 역사적 평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www.LH.or.kr



더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

당신의 수많은 일상 중에서
기억되는 특별한 날
더 큰 행복을 위해
LH가 함께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준
보금자리주택



어르신들의 새로운 출발
실버사원 일자리 창출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서민생활자금 마련



국민 한분 한분께 배려를 더한
맞춤형 임대주택



쾌적하고 건강한 쉼터를 위한
친환경놀이터 마련

LH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지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실버사원과 청년인턴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오천만 국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가요,
더 나은 미래





대한언론인회 古稀회우 하회마을로 문화탐방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6월 22일 금년에 고회를 맞은 회우 2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탐방행사를 가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본회회우)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는 흥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다수 참여, 고회 회우들과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안동 하회마을은 잘 알려진 대로 중요 민속 자료 제122호로 풍산류씨가 600여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며, 와가(瓦家)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조선시대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

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하회마을에는 서민들이 놀았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선비들의 풍류놀이였던 '선유줄불놀이'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생활문화와 고건축양식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날 문화탐방에 나선 고회 회우들은 특히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로서, 서애 류성룡(柳成龍)과 그의 셋째 아들 류진(柳珍)을 배향한 병산서원도 둘러보았다. 고회 회우들만을 위한 문화탐방행사는 흥원기 회장 취임 후 처음 시도된 것으로 올해가 두 번째다.

언론사 社友會 소식

경향신문

2011년 정기총회

6월 27일 11시 서울 을지로역 입구 맥스(MAX)광장에서 금년도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를 열고 옛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00여명의 경향사우들이 참석한 이날 단합대회는 원로회우에 대한 특별 예우, 동우회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관심사항들이 논의 됐다.

동아일보

동우 산 클럽 장봉도를 가다

지난 6월 14일 동우 산클럽(회장 성낙오·본회 편집위원장) 회원 21명은 인천 장봉도 국사봉에 오르는 2시간반의 산행후 선착장 입구 갯벌식당에서 친목을 다지며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서울신문

서우산악회 관악산 등산

서우산악회(회장 김선중)는 6월 정기산행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갖기로 했다. 지난 6월 18일엔 관악산에 올라 친목을 다졌다.

중앙매스컴

기우회 새 회장에 신종수사우

중앙매스컴 사우회 바둑모임(기우회) 회장에 신종수 사우가 선임됐다. 중앙매스컴 사우회 기우회는 또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마포구 소재 화유재에서 30명의 사우들이 참석해 대국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서 A조(1-3급이상)에서는

신동진 회원이 우승을, 김승태, 이역순(본회 회우)회원이 2, 3등을 차지했다.

KBS

경영사원모임 '한울림회' 출범

1) KBS 경영분야 퇴직사우들의 모임인 '한울림'회가 지난 5월17일 오후 6시 KBS 본관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 총회에는 이범경 채유석 신현석 손소진 김영택등 원로 회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2) 6월1일로 창립 22돌을 맞는 KBS 사우회는 창립기념행사로 6월 17일 오전 11시 KBS별관 공개홀에서 영화 감상회를 가졌다. 상영된 영화는 '킹스피치'였다.

3) 가톨릭KBS사우회(회장 서병주)는 지난 5월 9일 영등포 '토마스의 집'에서 회원 봉사 활동으로 노숙자 400여명에게 배식과 설거지등 급식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사랑을 베풀었다.

CBS

조춘택 새 회장 선출

1) 최근 열린 사우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에 조춘택 씨를 선임했다. 부회장엔 김향진 김홍식 마권수 박문국 이영우 이원준 주명옥 차기정씨, 감사엔 김진기 김종락씨가 선임됐다. 조춘택 선임회장은 "소통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CBS사우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 5월 15일 사우회 웹진 2호 발행, 2호에는 새만금 방조제 방문에 37명이 참석했다는 기사 등이 실렸다.

언론가 소식

한국일보 부회장 이종승·사장 박진열씨



이종승 부회장



박진열 사장



이상석 부사장

이 부사장은 1988년 한국일보에 입사 국 제부장, 인터넷부장 등을 역임한 후 코리아타임스 편집국장을 거쳐 2008년부터 부사장으로 재직해왔다.

한국일보 편집국장에 이충재씨



이충재 국장

집국 부국장을 지냈다.

스포츠 한국 사장에 이진희 씨



이진희 사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초중고 교사 NE 원격연수 접수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13일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사 대상 신문활용교육(NIE) 원격직무연수 신청을 받는다. 전주페이퍼가 후원하는 이번 연수는 8월

1~21일, 8월 15일~9월 4일 실시되며 참가인원은 각각 200명이다. 신청은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나 티쳐빌 원격연수 사이트(kan.teacherville.co.kr)에서 할 수 있다. 강의는 회당 2시간씩 총30시간 동안 '읽기와 쓰기 능력을 키우는 NIE'(7회) '논술 능력을 키우는 NIE'(8회) 등 두 가지 주제로 실시된다. 연수를 마친 교사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2학점을 취득한다. 참가자는 8월 9일 오후 2시 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시되는 집합연수에도 참여하며, 이때 권영부 NIE 한국위원회 부위원장(동북고 교사)이 다양한 교수, 학습법을 소개하고 수업 시연을 실시할 예정. 참가비 2만 원. 1544-7783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세미나개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본 NHK 이토 로지 서울지국장등 22명의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6월 3~4일 이틀간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일원에서 프레스투어를 시행했다. 3일 오후에는 철원 한탄강 리버 호텔에서 '한반도 평화현안과 언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 발족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김대성 이사장은 지난 8일 열린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새로 발족한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심의위원은 민경두 데일리팜 대표, 황재환 한경닷컴 대표,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 국장장, 이종혁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오세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다.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는 신문윤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독립기구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대학 신문읽기 강좌 지원' 선정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2011년도 2학기 대학 신문읽기 강좌 지원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지원 현황을 보면 미디어 이슈분석 (숙명여대), 글쓰기 기초 (광운대), 현대사회 연구 (경인교대), 신문으로 EU 시사읽기 (부산외대), 매체비평2 (경성대), 건축분석과 비평 (국립금오공과대), 신문으로 세상읽기 (세명대), 신문기사 정독을 통한 올바른 사회관 정립 (조선대), 신문읽기와 경력개발 (한남대)등이다.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 단국대 이사장에



김학준 이사장

학교법인 단국대 학은 최근 이사회에서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을 제23대 이사장에 선임했다. 취임식은 6월 15일 단국대 죽전캠퍼스 음악관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신아일보

새 임원진 구성

윤종보 회장(전 안동 MBC 사장·본회 회우)은 6월 30일 낮 서울 정동 배재회관에서 첫 임원회의를 열고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새로 위촉된 새 임원

진 가운데는 고문에 윤임술 김종하 유승택 호영진 홍진태 정운중 김길홍, 자문위원에 임덕규 정용기 천상기, 명예회장에 장기효, 이사에 조규석회우등이 추대 됐다. 이밖에 이동훈 회우는 이사 겸 회보편집위원장에 위촉됐다.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영월미디어 박물관 운영 맡아



고명진(전 한국일보 사
진담당 부국장)회우=
최근 영월 군청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심의위
원회의 미디어박물관유
치 결정과 함께 영월 미디어 박물관-
'미디어아카데미' 운영을 맡았다.

6·25 국가유공자 대상 특강



곽찬오(한국통일문화
진흥회 이사장) 원로회
우=5월 27일 11시 서
울 성동보훈회관 회의
실에서 대한민국 6·25
국가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운영위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무대로 확
장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실체'를 주
제로 특강.

CMC생명존중기금에 1천만원 쾌척



김충한(한국일보 사우
회 회장)회우=최근 가
톨릭중앙의료원(CMC)
생명존중기금에 1천만
원을 기부. 김 회우는
CMC생명존중기금 후원회 회원으로
천주교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자녀 공
부방 지원, 호스피스 지원 활동도 꾸
준히 하고 있다.

'백자의 歸鄉' 전시회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
장) 본회 발전기획위원
장=양구 방산자기박물
관 명예관장으로 6월
24일부터 9월 18일 까
지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소재 방산
자기박물관에서 박물관 개관 5주년을
맞아 '백자의 귀향' 주제로 개인과
기관 이 소장한 작품을 대여 받아 기
획전을 갖는다. 기획전에는 50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자랑스러운 중앙인' 선정



안평선(전 KBS 춘천방
송총국장)본회 이사=
지난 9일 중앙고교우회
(회장 김종인)는 안평
선 한국방송인회 상임
부회장을 '자랑스러운 중앙인'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6월 18일 오전 9
시 반 중앙고 강당에서 개교 103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하모니카 건강증진세미나 좌장 맡아



이광영(한국골든에이지
상임이사)회우=지난 6
월 24일 서울 역사박물
관에서 열린 고령자를
위한 하모니카 건강증
진 세미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
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대한언론인
회 후원기 회장을 비롯, 건강포럼 회
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수도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이병대(전 KBS 해설위
원) 본회 부회장= 6월
23일 1년 임기의 국제
로타리 3640지구 수도
로타리클럽 회장에 취
임. 1905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국제로타리는 현재 세계 2백개 나라
1백20만 회원들이 '봉사를 이념'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
동하는 단체이다.

6·25납북인사가족 가요무대 참관안내



이태영(전 중앙일보 색
선국장) 부회장=6·25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로 납북인사 가족
20여명이 KBS 가요무
대(6월 27일 방송)를 참관토록 주선.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 트레킹



조창화 본회 명예회장
=지난 4월 25일부터 5
월 11일까지 17일 동안
호주 남단 신비의 섬 태
즈메이니아(Tasmania)
로 트레킹 여행. 태즈메이니아는 호주
대륙 최남단에서 24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특이 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
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뉴욕본사 회의참석차 도미



한영도(CBS 뉴스 서울
지국장)회우=6월 27일
부터 1개월간 뉴욕 본
사 회의 참석차 출국
후 Newport Beach,
California 가족방문 후 귀국예정.

노인대학초청 특강



홍원기 본회 회장=지난
6월 7일 양주시 백석노
인대학 초청으로 '노인
복지와 젊게 살아가는
길'을 주제로 특강.

신임회우 환영합니다



이도형(李度珩)

서울강남구 도곡동 952 대우 양재 디오빌 604(우135-271)
전화 (02)576-2096
한국논단 사장(현), 조선일보 외신부장 편집국부국장 논설위원,
통한문제 연구소 소장, 관훈클럽 총무, 제1회 관훈언론상, 5·
16 민족상



최정호(崔楨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612-1503
전화 (031)715-7180 010-7181-0764
울산대학교 석좌교수(현), 한국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편집부차
장 편집위원 서독특파원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태열 회우 별세



한태열 회우 빈소에 홍원기 회장이 조문하고 있다.

한태열 회우가 6월 10일 별세했다.
향년 71세. 13일 오전 5시 30분 서울대
병원(혜화동)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고 한태열 회우는 1940년 7월 17일 대
구에서 출생해 경기고와 서울대문리대
외국학과를 졸업하고 1964년 동아일보
사회부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일선 취재현장에서의 언
론 활동 보다는 학문을 통해 후진을 양
성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미국 미네소
타주립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해 석
사 박사학위를 취득, 이 대학 신문방송
대학연구소 연구 조교(69년), 서강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를 거쳐 고

대 이화여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강사
직을 역임하는 등 주로 학문에 정진하
다 문화공보부 보도국 부국장(3급), 대
통령 공보비서관(2급) 해운항만청 차
장(1급), 해운산업연구원 이사장, 종합
유선방송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종합유
선방송협회 케이블TV 연구소장직을 역
임하기도했다. 한때 대전일보 논설위
원 전무이사직도 역임한 고인은 정년퇴
임 직전엔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전직해 후진 양성에 힘썼다. 상훈으로
는 홍조근정훈장. 저서로는 '신문학이
론', '한국 언론의 구조적 통계와 언론
자유' 등을 남겼다.

회우 저술문고 보내주신 분

(2011년 6월 접수순)

구종서 회우 = '불멸의 민족혼 삼별초' 1.2.3권((2008)
오근영 회우 = '아! 선생님아..' (2011)
이민희 회우 = '이민희의 취재현장보고서 특파원 리포트' (2009)
안병훈 회우 = '선구자 서재필' (2011)
여영무 회우 = '좌파대통령의 언론과의 전쟁' (2007) '배반당한 민족공조' (2010)
황원갑 회우 = '인물로 읽는 삼국유사' (2010)
박석흥 회우 = '건국60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인식' (2008) '21세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사회' (2011)

연회비 납부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2007 박경석
2008 박경석
2009 박경석 박현태 조규진
2010 김양삼 박경석 이종석 박용운
박현태 장준식 조규만
2011 강성구 계성일 계창호 김윤석
김광섭 김양삼 김정일 김춘빈
박경석 박용운 안건혁 장석훈
장준식 전신병 조규만 한태열
2012 김춘빈 안현태 한태열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종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p.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주소·전화번호 변경

김대환 회우= 010-5313-2631
김주철 회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7-1 정자 아이파크 1712호
(우 463-957)
김후란 회우= 010-3000-8266
이경재 회우= 011-230-0334
이종석 회우= 010-2275-0173
이태영 부회장= 010-2447-7268
이상호 회우=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한국 아파트 609동 1805호
(우480-737)

자녀 결혼

김양삼 회우 = 7월 16일(토) 오후 1시
포에버 리더스 서초점 12
층에서 막내 결혼.
박경석 회우 = 6월 18일(토) 오후 1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3녀
결혼.
이종준 회우 = 7월 10일(일) 낮 12시
30분 서울 로얄호텔 2층
로얄볼룸에서 차녀 결혼.



더 크고 강한 부산을 향한 10대 메가프로젝트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부산 10대 메가프로젝트,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부산의 미래가 새롭게 디자인됩니다.



01. 녹색기술기반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02. 센트럴베이와 원도심 재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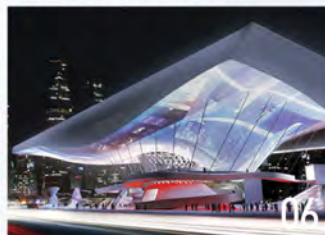
03.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04.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



05.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



06. 아시아 영상문화중심도시 육성



07. 글로벌수준의 MICE산업도시 육성



08. 체류·휴양형 복합관광단지 개발



09. 세계 10대 광역경제권(MCR) 중심도시 발전



10. 2020 하계올림픽 유치

10대 메가프로젝트!
부산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도약합니다.

‘10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산을 넘어 세계속의 더 큰 부산으로
힘차게 발돋움 하겠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성공 개최를 위해 포스코가 함께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왜 파트너로 포스코를 먼저 떠올릴까요?

고객의 성공을 향해 먼저 움직이는 일, 포스코가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소니, GE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스코와 파트너십을 맺는 이유,
포스코의 신기술과 신제품은 모두 고객의 성공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경량화,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극한지역으로의 사업진출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세계 최초, 최고의 제품들을 만들어 갑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더 큰 세상에
더 많은 포스코가
필요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포스코센터 음악회 이벤트에 참여하세요